1 단어

개념 1 품사의 분류 기준 – ❶ 형태

본문 12쪽

1 품사 **2** 불변어, 가변어 **3** (1) 사과, 한강, 하늘, 나, 오늘 (2) 가다, 빨갛다, 만나다 **4** (1) 그, 나무, 는, 정말, 열매, 가 (2) 크고(크다), 많다 **5** (1) 샀다(사다) (2) 지저분한(지저분하다), 청소했다(청소하다) (3) 높고(높다), 푸르다

2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는 불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가변어이다.

3 (2) '가다', '만나다'와 같이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빨갛다'와 같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4 (2) '크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크고, 크니, 크면' 등으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많다'는 '많고, 많으니, 많으면' 등으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5 (1) '샀다'는 '사다'가 기본형으로, '사고, 사니, 사면'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2) '지저분한'은 '지저분하다'가 기본형으로, '지저분하고, 지저분하니, 지저분하면'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청소했다'는 '청소하다'가 기본형으로, '청소하고, 청소하니, 청소하면'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개념 2 품사의 분류 기준 – ❷ 기능

본문 13쪽

1 기능 **2** (1) ⓔ (2) ⓑ (3) ⓐ (4) ⓒ (5) ⓓ **3** (1) 장미 (2) 피었네(피다) (3) 활짝 (4) 가 (5) 어머나

3 (1) '체언'은 문장에서 움직임이나 상태의 주체 또는 움직임의 대상이 되어 문장의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이므로, '장미'가 이에 해당한다.
(2) '용언'은 문장에서 주체(주어)의 움직임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서술하는 단어이므로, '피었네(피다)'가 이에 해당한다.
(3) '수식언'은 문장에서 주로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이므로, '피었네'를 꾸며 주는 '활짝'이 이에 해당한다.
(4) '관계언'은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가'가 이에 해당한다.
(5) '독립언'은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이므로, '어머나'가 이에 해당한다.

개념 3 품사의 분류 기준 – ❸ 의미

본문 14쪽

1 공통적 **2** 명사, 대명사 **3** 동사, 형용사 **4** 관형사, 부사 **5** 감탄사, 대명사, 조사, 관형사, 명사, 조사, 동사

1 단어들이 지닌 공통적인 의미 성질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한다.

5 '어머'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 '이곳'은 명사를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새'는 체언(건물)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건물'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에', '이'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생겼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STEP ❶ 개념 Drill 01~03

본문 15쪽

1 ○ **2** ○ **3** × **4** × **5** 불변어 **6** 가변어 **7** ○ **8** ○ **9** × **10** ○ **11** ○ **12** × **13** ○ **14** 체언 **15** 용언 **16** 관계언 **17** 그: 대명사, 사과: 명사, 하나: 수사 **18** 차가운: 형용사, 분다: 동사 **19** 에, 이: 조사 **20** 앗: 감탄사, 그: 관형사, 너무: 부사

4 서술격 조사 '이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이고, 이니, 이면'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6 '부른다'는 '부르다'가 기본형이며 문장에서 쓰일 때 '부르고, 부르니, 부르면'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9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장에서 '그'는 '소문' 앞에 놓여서 '소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12 '키가 훌쩍 컸다.'라는 문장에서 밑줄 친 '훌쩍'은 뒤에 오는 용언 '컸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로 수식언에 속한다.

17 '그는 사과 하나를 맛있게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하나'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에 속한다.

18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분다.'라는 문장에서 '차가운'은 바람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속한다.

20 '앗, 그 약속에 너무 늦었네!'라는 문장에서 '그'는 약속 앞에 놓여서 '약속'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관형사에 속한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6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② **05** ② **06** ③
07 ① **08** ② **09** ① **10** ② **11** ④ **12** ③
13 ④ **14** ③ **15** 예시 답안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가? **16** (1) 예시 답안 ㉠과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가변어이고, 문장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 예시 답안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01 하나의 단어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섯'은 수사와 관형사로, '같이'는 부사와 조사로 쓰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③, 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단어)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성질이 있고, 앞말과 붙여쓰기를 한다.

02 품사의 분류 기준에는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의 변화 여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기능, 단어가 지닌 공통된 의미가 있다. 단어가 문장에서 위치하는 자리는 품사의 분류 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03 형용사 '맛있는(맛있다)', 형용사 '가득한(가득하다)', 동사 '열립니다(열리다)'는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오답 풀이 |

①은 동사, ②는 독립어인 감탄사, ③은 형용사, ⑤는 수식언에 해당하는 관형사,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04 동사 '갚다', 형용사 '후련하다'는 모두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고, 감탄사 '글쎄', 관형사 '오랜', 명사 '솜사탕', 부사 '저절로'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05 〈보기〉의 밑줄 친 단어 '잘하다'는 문장에서 쓰일 때 각각 '잘하는구나, 잘하는, 잘해야' 등으로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보기〉의 밑줄 친 단어는 '잘하다'의 활용형으로, 모두 '잘하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⑤ '잘하는구나', '잘해야'(1, 3행)는 주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서술어, '잘하는'(2행)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에서의 기능(역할)이 달라도 단어의 품사는 동사로 동일하다.

06 수식언은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관형사는 체언을,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는 차이가 있다.

| 오답 풀이 |

①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②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④ 관계언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사이다.
⑤ 독립언에 해당하는 단어는 감탄사이다.

07 ㉠은 '책'이라는 체언을, ㉡은 '읽으면(읽다)'이라는 용언을 꾸며 주고 있다. 둘 다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공통된 기능을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서술어 '있어요(있다)'의 주체로 쓰여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생략된 주어 '너'의 동작이나 작용을 서술하고 있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다.

08 '가', '와', '에서', '를'은 모두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인 관계를 맺어 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언으로, 품사로는 조사에 해당한다.

09 '셋, 일곱, 둘째'는 모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조사이다.

10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로 분류하는 기준은 단어들이 나타내는 공통된 의미이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11 〈보기〉의 단어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12 '이것', '그곳', '그녀'는 모두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대명사는 불변어이고, 체언에 속한다.

13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중에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은 수식언이다. 그중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는 관형사에 해당한다. '여러'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면서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어린'은 '어리다'의 활용형으로 형태가 변하는 형용사이다.
② '꼭'은 용언 '들어맞았다'를 꾸며 주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사이다.
③ '되기'는 '되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⑤ '화려한'은 '화려하다'의 활용형으로 형태가 변하는 형용사이다.

14 '가장'의 품사는 부사로, 용언 '소중한(소중하다)'을 꾸며 주는 수식언이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세상'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고,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② '에서'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 주는 역할을 하는 관계언으로 조사이다.
④ '소중한'은 기본형이 '소중하다'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고,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이고,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⑤ '것'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고,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고,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명사 중에서도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 쓰이는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15 ㉠의 '옛, 어떤'은 관형사, '날개, 평화'는 명사, '마침내'는 부사, '여보세요'는 감탄사로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의 '맑다, 어둡다, 시원하다'는 형용사, '쉬다, 달려가다'는 동사로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 평가 기준 |

㉠과 ㉡의 분류 기준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조건〉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1점

16 ㉠과 ㉡을 품사의 분류 기준인 형태, 기능, 의미 기준을 바탕으로 순서대로 분류해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도록 한다.

| 평가 기준 |

(1)

㉠과 ㉡의 공통점 두 개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과 ㉡의 공통점을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조건〉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1점

(2)

㉠과 ㉡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조건〉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1점

개념 04 명사

본문 19쪽

1 이름 **2** 보통 명사 **3** 의존 명사 **4** (1) 고유 명사 (2) 의존 명사 (3) 추상 명사 **5** (1) 할 수 (2) 예쁜 것

4 (1) '설악산'은 특정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이다.
(2) '것'은 앞말 '먹을'의 꾸밈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3) '사랑', '증오'는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다.

5 (1), (2)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개념 05 대명사

본문 20쪽

1 대명사 **2** 인칭, 지시 **3** (1) 나, 여러분, 너, 너희, 이분 (2) 여기, 저것 **4** 여기, 우리, 그곳 **5** (1) 흥부 (2) 흥부 (3) 제비 (4) 박씨 (5) 박

5 (1) 흥부가 형님인 놀부에게 말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 '저'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저'는 흥부를 가리킨다.
(2) 흥부가 놀부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부가 이러한 흥부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의미이므로, '그'는 흥부를 가리킨다.
(3) 흥부가 제비에게 말하는 상황이므로 '너'는 제비를 가리킨다.
(4) '이것'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가리킨다.
(5) 흥부가 지붕 위에 열린 박을 따서 톱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므로 '그것'은 박을 가리킨다.

개념 06 수사

본문 21쪽

1 수사 **2** 양수사, 서수사 **3** (1) ㄱ, ㄷ, ㅁ (2) ㄴ, ㄹ **4** (1) 하나 (2) 하나, 열 (3) 첫째, 둘째 (4) 둘 (5) 셋 **5** (1) 다섯 (2) 둘째

4 (1) 이 문장에서의 '둘째'는 '둘째 자식(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하나'는 사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2) '하나', '열'은 구체적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3) '첫째', '둘째'는 사물이나 일의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서수사이다.
(4)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로, 뒤에 주격 조사가 붙어 쓰였다.
(5) '셋'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고 있다.

5 (1) '다섯'은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로, 질문의 개수를 의미한다.
(2) '둘째'는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발표 순서를 의미한다.

개념 07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본문 22쪽

1 ㉠ 명사, ㉡ 대명사, ㉢ 수사 **2** 변하지 않는다 **3** 받을 수 있다 **4** 있다 **5** (1) 5 (2) 아이, 사과, 수지 (3) 그것 (4) 둘

4 체언은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고 홀로 쓰이기도 한다.

5 (3) '대명사'는 '사과'를 대신 나타내는 단어인 '그것'이다.
(4) '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STEP 1 개념 Drill 04~07

본문 23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나: 대명사, 그림: 명사 **15** 이것: 대명사, 행복: 명사 **16** 너희: 대명사, 미소: 명사 **17** 첫째: 수사, 너: 대명사 **18** 거기: 대명사, 소나무: 명사, 그루: 명사 **19** 하나: 수사, 아홉: 수사, 열: 수사

5 ⓐ의 '하나'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 수사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에서 '감 한 개'의 '한'은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로, 의존 명사 '개'를 꾸미고 있으며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6 ⓐ의 '둘'과 '넷'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의 '두'는 '사람'이라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없다.

7 ⓐ의 '이'는 '고양이'를 꾸미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이다. ⓑ의 '이것'은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인 지시 대명사이다.

8 ⓐ의 '그'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단어인 인칭 대명사로,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의 '그'는 '식당'을 꾸미는 기능을 하며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없는 관형사이다.

9 '그'는 체언인 '바다' 앞에 놓여 그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체언이 아니다.

12 '새'는 체언인 '컴퓨터' 앞에 놓여 그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로, 체언이 아니다.

16 '너희'는 2인칭 대명사이다.

17 '첫째'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수사, '너'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인 대명사이다.

18 '그루'는 앞말 '한'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24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③ **06** ③ **07** ③ **08** ② **09** ③ **10** ㉠ 할머니, 강아지, 새끼, 마리, 집, ㉡ 거기, ㉢ 하나 **11** (1) 예시 답안 '너'는 '태수', '우리'는 '태수와 다정', '나'는 '다정'을 가리키는 말로 모두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인칭 대명사이다. (2) 예시 답안 '어디'는 '태수가 그때 있었던 장소', '저기'는 태수와 다정이 지난번에 갔던 '분식집'을 가리키는 말로 모두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지시 대명사이다.

01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명사이다.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02 '그', '나', '그분'은 모두 대명사이다.

03 '평화'와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고, '들판', '꽃', '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이다.

04 '만큼', '수', '그루'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고(ㄱ), 앞말의 꾸밈을 받아 쓰이는(ㄷ) 의존 명사이다.

| 오답 풀이 |

ㄴ. 의존 명사는 뒷말이 아닌 앞말과 띄어쓰기를 한다.

ㄹ. 앞말의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단어는 조사이다.

05 ㉢은 진우가 말한 '공원'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06 '우유, 두유, 중, 것'은 명사, '와, 을'은 조사, '먹을래(먹다)'는 동사이다. '어느'는 체언 '것'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따라서 대명사가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의 '너', '무엇', ②의 '당신', ④의 '저', ⑤의 '여기', '저기'는 대명사이다.

07 '두'는 체언 '시'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8 체언은 '새 책, 어떤 책, 모든 책, 좋은 책' 등과 같이 앞에 꾸며 주는 말이 올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체언은 '책이, 책을, 책과' 등과 같이 뒤에 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③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④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관형사는 수식언에 속한다.

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09 ㉠의 '그'와 ㉤의 '너희'는 모두 인칭 대명사로,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그'는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이고, ㉡의 '그'는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의 '공감'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고, ㉣의 '비'는 같은 특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이다.

④ ㉥의 '첫째'는 사람이나 사물의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이고, ㉤의 '둘'은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이다.

⑤ ㉣은 다른 말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다.

10 〈보기〉에 쓰인 체언은 '할머니', '강아지', '하나', '새끼', '마리', '집', '거기'이다. 그중 '하나'는 수사, '거기'는 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이다.

| 평가 기준 |

㉠~㉢을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3점
㉠~㉢ 중 두 개를 정확하게 쓴 경우	2점
㉠~㉢ 중 한 개를 정확하게 쓴 경우	1점

11 '너', '우리', '나'는 모두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로, 각각 '태수', '다정과 태수', '다정'을 가리킨다. '어디'와 '저기'는 모두 장소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로, 각각 태수가 그때 있었던 '장소', 태수와 다정이 지난번에 갔던 '분식집'을 가리킨다.

| 평가 기준 |

(1)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하게 쓰고, 인칭 대명사로 분류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만 정확하게 쓰거나 인칭 대명사로 분류한 까닭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점

(2)

지시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정확하게 쓰고, 지시 대명사로 분류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지시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만 정확하게 쓰거나 지시 대명사로 분류한 까닭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점

개념 08 동사

본문 26쪽

1 움직임, 작용 **2** 있다 **3** (1) 산다(사다) (2) 앉다 (3) 춘다(추다) (4) 찾으니(찾다), 느낀다(느끼다) **4** ② **5** (1) 쉬어라 (2) 쉬자 (3) 쉰다

3 (4)에 쓰인 동사는 '찾으니(찾다)'와 '느낀다(느끼다)'이다. '사소한(사소하다)'는 형용사이다.

4 '두껍다'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나머지 단어들(솟다, 자다, 잡다, 걷다)은 움직임(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5 (1) 명령형 표현은 용언의 어간 '쉬-'에 어미 '-어라'를 결합하여 만든다.
(2) 청유형 표현은 용언의 어간 '쉬-'에 어미 '-자'를 결합하여 만든다.
(3) 현재형 표현은 용언의 어간 '쉬-'에 어미 '-ㄴ-'과 '-다'를 결합하여 만든다.

개념 09 형용사

본문 27쪽

1 상태, 성질 **2** ③ **3** 없다 **4** (1) 무겁다 (2) 달콤한(달콤하다), 좋다 (3) 아프고(아프다), 괴롭다 (4) 환하다 **5** ⑤

2 '이러하다'는 지시 형용사, 나머지는 모두 성상 형용사이다.

5 ⑤'자란다(자라다)'는 '생물체가 세포의 증식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점점 커지다.'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개념 10 용언 – 동사, 형용사

본문 28쪽

1 용언 **2** (1) 웃다, 쳐다보다 (2) 빠르다, 귀엽다 **3** 활용 **4** (1) 높- (2) 오르- (3) 착하- (4) 기어가-

4 (1)~(4)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높다, 높고, 높으며'의 어간은 '높-', '오르다, 오르고, 오르며'의 어간은 '오르-', '착하다, 착하고, 착하며'의 어간은 '착하-', '기어가다, 기어가고, 기어가며'의 어간은 '기어가-'이다.

STEP 1 개념 Drill 08~10

본문 29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씻-, -다 **12** 예쁘-, -지 **13** 돌아오-, -면 **14** 슬프-, -지만 **15** 자랑스럽-, -고 **16** 빨갛다, 형, 다가가다, 동 **17** 먹다, 동, 고소하다, 형 **18** 즐겁다, 형, 놀다, 동 **19** 하다, 동, 길어지다, 동 **20** 아름답다, 형, 되다, 동 **21** 친하다, 형, 넓다, 형

1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움직임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로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은 체언이다.

5 형용사는 '-어라/-아라'나 '-자' 등과 같이 명령이나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와는 결합할 수 없다.

6 '조용히'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용언 '해(해 줄래)'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8 '신기한'은 기본형 '신기하다'의 어간 '신기하-'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9 '높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용언 '날고(날고 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5 '자랑스럽고'의 기본형은 '자랑스럽다'이며, 어간은 '자랑스럽-'이고, 어미는 '-고'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30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② **05** ②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예시 답안 '조용하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형용사는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하자'는 잘못된 표현이다. 올바른 표현은 '조용히 하자.'이다. **11** 예시 답안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건너다, 가다, 팔다'는 동사이고 '찬란하다'는 형용사이다.

01 〈보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품사는 동사이다. '날아다니네(날아다니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오답 풀이 |

①의 '세다', ③의 '따뜻했다(따뜻하다)', ④의 '밝았다(밝다)', ⑤의 '좁구나(좁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02 〈보기〉에 제시된 '놀다'와 같은 동사는 청유형 어미 '-자',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현재형 어미 '-ㄴ-/-는-'과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다. '힘들다'는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동사이다.

03 '낳았다(낳다)'는 목적어 '새끼를'과, '칭찬하셨다(칭찬하다)'는 목적어 '모두를'과 함께 쓰였다.

| 오답 풀이 |

ㄱ의 '열렸다(열리다)'와 ㄴ의 '늘어났다(늘어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04 '멀다', '낫다', '곱다'는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형용사는 용언에 속하며 자립하여 홀로 쓰일 수 있다.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이는 말은 조사이다.
③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④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이다.
⑤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청유나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05 〈보기〉에 쓰인 용언은 '하얀(하얗다)', '덮였고(덮이다)', '깨끗한(깨끗하다)', '자랐다(자라다)'이다. 그중 '하얗다'와 '깨끗하다'는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동사이다.

06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의 움직임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은 독립언이다.

07 '꽂다'는 기본형으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08 '따위'는 '앞에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것들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 명사이다.

| 오답 풀이 |

㉠의 '밝은(밝다)'은 형용사이고, ㉡의 '말한다(말하다)', ㉣의 '넣고(넣다)', ㉤의 '빚은(빚다)'은 모두 동사이다.

09 ㉡에 쓰인 용언 '일어나는(일어나다)'과 '잡는다(잡다)'는 모두 동사이므로 '일어나자', '잡자'와 같이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에 쓰인 용언 '짧고(짧다)'와 '길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③ ㉡에 쓰인 용언 '일어나는(일어나다)'과 '잡는다(잡다)'는 모두 동사로,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다.
④ ㉠에 쓰인 용언은 '짧고(짧다)'와 '길다'이고, ㉡에 쓰인 용언은 '일어나는(일어나다)'과 '잡는다(잡다)'이므로 ㉠과 ㉡에 쓰인 용언의 개수는 총 4개이다.
⑤ ㉠에 쓰인 용언은 형용사이므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지만, ㉡에 쓰인 용언은 동사이므로 명령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10 '조용하자(조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용히 하자'와 같이 바꾸어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 평가 기준 |

단어의 활용이 잘못된 까닭과 올바른 표현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단어의 활용이 잘못된 까닭과 올바른 표현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11 〈보기〉에 쓰인 용언은 '찬란한(찬란하다)', '건너(건너다)', '갈게(가다)', '파는(팔다)'이다. 그중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찬란한(찬란하다)'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다.

| 평가 기준 |

동사와 형용사로 정확히 구분하고, 구분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동사와 형용사로 정확히 구분하였으나, 구분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동사와 형용사의 기본형을 쓰지 않고 〈보기〉에 제시된 단어의 형태를 그대로 쓴 경우	-1점

개념 11 관형사

본문 32쪽

1 체언, 성상, 지시, 수 **2** (1) 옛, 헌 (2) 그, 어느 (3) 넷째, 여러
3 이, 모든, 순 **4** (1) 무슨 (2) 세 (3) 옛

3 '이', '모든', '순'은 각각 체언 '국', '고기', '살코기'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4 (1) '어느'는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로 지시 관형사이고, '무슨'은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나 대상, 물건 따위를 물을 때 쓰는 말.'이므로 문맥상 '무슨 일'이 적절하다.
(2) '세'는 '그 수량이 셋임을 나타내는 말.'로 수 관형사이고 '셋'은 '둘에 하나를 더한 수.'로 수사이다. 의존 명사 '개'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가 쓰여야 하므로 '세'가 적절하다.
(3) '예'는 '아주 먼 과거.'를 뜻하는 명사이고, '옛'은 '지나간 때의.'를 뜻하는 관형사이다. 명사 '친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가 쓰여야 하므로 '옛'이 적절하다.

개념 12 부사

본문 33쪽

1 용언, 성분, 문장 **2** (1) 못, 살짝, 오늘 (2) 설마, 하지만
3 (1) 다 (2) 또는 (3) 빨리, 천천히 (4) 오래, 안

2 '못'은 부정 부사, '살짝'은 성상 부사, '오늘'은 지시 부사로 모두 문장의 한 부분만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설마'는 양태 부사, '하지만'은 접속 부사로 모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다.

3 (1) '다'는 용언 '가져(가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 '또는'은 '김밥'과 '떡볶이'를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3) '빨리'와 '천천히'는 각각 '뛰지(뛰다)'와 '걸어가렴(걸어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4) '오래'와 '안'은 각각 '사용하면(사용하다)'과 '와(오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개념 13 수식언 – 관형사, 부사

본문 34쪽

1 수식언 **2** 관형사, 부사 **3** 하지 않는다 **4** 없다 **5** 꾸며 주기도 한다 **6** (1) 5 (2) 두, 어느 (3) 나란히, 솔솔, 함께

5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때로는 체언을 꾸며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의 '바로'와 '겨우 둘만 왔다.'와 '겨우'는 부사이지만 각각 체언 '행복', '둘'을 꾸며 줄 수 있다.

STEP 1 개념 Drill 11~13

본문 35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웬: 관형사, 그리: 부사 **14** 높이: 부사, 멀리: 부사 **15** 이리: 부사, 꼭: 부사 **16** 깨끗이: 부사, 새: 관형사 **17** 오랜: 관형사, 마침내: 부사 **18** 수백: 관형사, 반드시: 부사 **19** 더: 부사, 힘껏: 부사

3 문장을 이루는 한 부분을 꾸며 주는 부사는 성분 부사이다.

5 '넓은'은 '넓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용언에 속한다.

8 '지혜롭게'는 '지혜롭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용언에 속한다.

9 '여섯 자루'에 쓰인 '여섯'은 체언 '자루'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여섯까지는'에 쓰인 '여섯'은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수사이다. '까지'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0 '그가'에 쓰인 '그'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대명사이고, '그 사람'에 쓰인 '그'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1 '빠르게'는 '빠르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빨리'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용언 '끝내고(끝내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2 '따뜻하게'는 '따뜻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따뜻이'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용언 '대했다(대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9 '더'는 용언 '넓은(넓다)'을, '힘껏'은 용언 '나아가기(나아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36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① **06** ③ **07** ② **08** ④ **09** ② **10** (1) ㉠의 품사: 형용사, ㉡의 품사: 부사 (2) ㉠과 ㉡은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11** (예시 답안) '헌', '그'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각각 체언 '집', '소식'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이고, '정성껏', '일부러'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서) 각각 용언 '치료해(치료하다)', '부러뜨렸다(부러뜨리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01 '어느', '이', '옛'은 각각 체언 앞에 놓여 체언 '별', '마을', '추억'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ㄷ). 관형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ㄹ).

| 오답 풀이 |
ㄱ.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다.
ㄴ. '어느'와 '이'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지만, '옛'은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이다.

02 '여러'는 체언 '아이'를, '한'은 체언 '사람'을 꾸며 주며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은 '넓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은 용언 '뛰고(뛰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은 '무겁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03 ㉠은 성상 관형사, ㉡은 지시 관형사, ㉢은 수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다. '첫째 주'에 쓰인 '첫째'는 체언 '주'를 꾸며 주면서 순서를 나타내므로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04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아무도'는 대명사 '아무'에 조사 '도'가 결합한 말이다.

05 ㉠의 '참'은 용언 '좋구나(좋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아주'는 관형사 '새'를 꾸며 주고 있다.
③ '잘만'은 부사 '잘' 뒤에 조사 '만'이 결합한 형태이다.
④ '설마'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이다.
⑤ '또는'은 앞말 '국어'와 뒷말 '영어'를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06 '남편은 아내를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에 쓰인 부사는 '빙그레'로, 뒤에 오는 용언 '지었다(짓다)'를 꾸며 주는 성분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의 '제발', ②의 '모름지기'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이다. ④의 '그래서' ⑤의 '하지만'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 주면서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접속 부사이다. 양태 부사와 접속 부사는 모두 문장 부사에 해당한다.

07 '이렇게'의 기본형은 '이렇다'이다. '이렇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와 같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의 '갑자기', ㉢의 '천천히', ㉣의 '차분히'는 모두 용언을 꾸며 주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부사이다. ㉤의 '그'는 뒤에 오는 체언 '자리'를 꾸며 주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관형사이다.

08 '이웃집 둘째는'에 쓰인 '둘째'는 '둘째 자식'을 뜻하는 명사이다. '둘째 아이가'에 쓰인 '둘째'는 체언 '아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다섯 괴물'에 쓰인 '다섯'은 체언 '괴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우리 다섯은'에 쓰인 '다섯'은 수사이다.
② '이보다'에 쓰인 '이'는 대명사이고, '이 신발은'에 쓰인 '이'는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③ '바로 오늘이'에 쓰인 '바로'는 체언 '오늘'을 꾸며 주는 부사이고, '바로 그었다'에 쓰인 '바로'는 용언 '그었다(긋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저녁을 먹었다'에 쓰인 '저녁'은 '저녁 식사'를 뜻하는 명사이고, '저녁 무렵이었다'에 쓰인 '저녁'은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명사이다.

09 '어느'는 체언 '날'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느닷없이'는 용언 '터졌어(터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좀'과 '많이'는 각각 부사 '많이'와 용언 '넣어라(넣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저'와 '네'는 각각 체언 '집'과 '식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④ '또박또박'은 용언 '썼다(쓰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홀로'는 용언 '살아가기(살아가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0 (1) ㉠의 '깨끗하게'는 '깨끗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의 '깨끗이'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2) ㉠과 ㉡은 각각 용언 '청소했다(청소하다)'와 '정돈되니(정돈되다)'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
(3)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고, ㉡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라는 차이점이 있다.

| 평가 기준 |

(1)

㉠과 ㉡의 품사를 정확히 쓴 경우	2점
㉠과 ㉡의 품사 중 하나만 정확히 쓴 경우	1점

(2)

㉠과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과 ㉡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점

11 〈보기〉에 쓰인 수식언은 '헌', '정성껏', '그', '일부러'이다. 이 넷을 관형사와 부사로 나누는 기준은 꾸밈을 받는 말이 체언이냐, 용언이냐이다. '헌', '그'는 각각 체언 '집', '소식'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이고, '정성껏', '일부러'는 각각 용언 '치료해(치료하다)', '부러뜨렸다(부러뜨리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 평가 기준 |

관형사와 부사로 정확히 구분하여 쓰고, 구분한 기준을 적절하게 서술하고, 꾸며 주는 말을 정확히 쓴 경우	6점
관형사와 부사로 정확히 구분하여 쓰고, 구분한 기준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꾸며 주는 말을 정확히 쓰지 않은 경우	4점
관형사와 부사로 정확히 구분하여 썼으나, 구분한 기준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하고, 꾸며 주는 말만 정확히 쓴 경우	3점
관형사와 부사로 정확히 구분하여 쓰기만 한 경우	1점

개념 14 조사 - 관계언

본문 38쪽

1 조사 **2** 격조사, 보조사 **3** (1) 를 (2) 는 (3) 와 **4** (1) 이, 를 (2) 만 **5** (1) 가, 의, 이다 (2) 는, 만

3 (1) '를'은 앞말이 문장 내에서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격조사이다.
(2) '는'은 앞말에 화제 표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3) '와'는 '떡볶이'와 '군만두'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4 (1) '이'는 앞말이 문장에서 주어의 자격을, '를'은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2) '만'은 앞말에 단독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5 (1) '가'는 주격 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관계언이다.
(2) '는'은 화제 표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만'은 대상을 한정하는 보조사로 관계언이다.

개념 15 감탄사 - 독립언

본문 39쪽

1 감탄사 **2** 독립언 **3** (1) 오 (2) 네 (3) 여보세요 **4** (1) 어, 앗 (2) 야 (3) 응

3 (1) '오'는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독립언이다.
(2)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독립언이다.
(3) '여보세요'는 전화를 할 때 상대편을 부르는 말로 독립언이다.

4 (1) '어'는 놀라거나 당황할 때 나오는 소리이고, '앗'은 다급하거나 놀랐을 때 지르는 외마디 소리이다.
(2) '야'는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르는 말이다.
(3) '응'은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이다.

STEP 1 개념 Drill 14~15

본문 40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이야: 놀람이나 느낌, 와: 놀람이나 느낌 **13** 여보세요: 부름, 응: 대답 **14** 만: 보조사, 을: 격조사 **15** 가: 격조사, 도: 보조사 **16** 는: 보조사, 의: 격조사, 이다: 격조사 **17** 은: 보조사, 와: 접속 조사, 를: 격조사

1 관계언은 홀로 쓰일 수 없고,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5 ⓑ의 '같이'는 체언인 '친구' 뒤에 붙어 썼으므로 조사이고, ⓐ의 '같이'는 부사이다.

6 ⓐ의 '만큼'은 체언인 '너' 뒤에 붙어 썼으므로 조사이고, ⓑ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7 ⓑ의 '밖에'는 체언인 '너' 뒤에 붙어 썼으므로 조사이고, ⓐ의 '밖에'는 체언인 '밖' 뒤에 조사인 '에'가 결합한 것이다.

8 ⓐ의 '이다'는 체언인 '금' 뒤에 붙어 썼으므로 조사이고, ⓑ의 '이다'는 '물건을 머리 위에 얹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9 '진수야'는 누구를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체언인 '진수' 뒤에 조사 '야'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감탄사가 아니다.

12 '이야'는 놀라거나 갑자기 힘을 쓸 때, 또는 기쁘거나 화가 날 때 외치는 소리로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감탄사이다.

14 '만'은 앞말에 '단독'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을'은 앞말이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격조사이다.

15 '가'는 앞말이 문장에서 주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격조사이고, '도'는 앞말에 더함이나 아우름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16 '는'은 앞말에 '화제 표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의'와 '이다'는 앞말에 각각 관형어와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격조사이다.

17 '은'은 앞말에 '화제 표시'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이고, '와'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그리고 '를'은 앞말이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격조사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41쪽

01 ③ **02** ③ **03** ① **04** ③ **05** ④ **06** ①
07 ⑤ **08** ① **09** ⑤ **10** 예시 답안 (가)의 '뿐'은 체언인 '너' 뒤에 붙어서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고, (나)의 '뿐'은 앞말인 '공부할'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11** 예시 답안 '(가)에서 감탄사는 '야'이고,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낸다. (나)에서 감탄사는 '얘'이고, 부름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에서 감탄사는 '어'이고, 대답의 의미를 나타낸다.

01 서술격 조사는 관계언 중 유일하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02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자, 문장 속에서 서술어로서 앞말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만'은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자,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② '는'은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자, 문장 속에서 앞말의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④ '를'은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자, 문장 속에서 앞말의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⑤ '와'는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자, 둘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03 ㉠의 '에'는 앞말에 부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사격 조사, ㉡의 '은'은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04 〈보기〉에는 주격 조사 '가', 부사격 조사 '에게', 목적격 조사 '를'을 포함해 총 3개의 격조사가 사용되었다.

05 '에'는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이다.

06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때, 보조사인 '만큼'과 '대로', 접속 조사인 '랑'은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또한 접속 조사인 '랑'은 뒷말과는 띄어 써야 하므로,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①이다.

07 ⑤ '을'은 목적격 조사로, 체언 '책상' 뒤에 붙어 해당 대상이 뒤에 오는 타동사('밀다')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인 목적어임을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다른 것은 제외하고 그것 하나로 국한하는 '한정'의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② 평소와 다르게 '유독 그 경우에만 그러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나'는 수량이나 정도가 예상 기준보다 훨씬 많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나 차선책으로 수용하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08 체언 뒤에 붙어서 사용되는 것은 조사이고 감탄사는 독립어로, 다른 단어들과 띄어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09 ㉠은 서술격 조사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달라지는 가변어이다.

10 동일한 형태의 단어 '뿐'이 조사(보조사)로 쓰였는지, 의존 명사로 쓰였는지를 판별하는 문항이다. 앞말의 품사(체언인지 용언의 관형사형인지)와 띄어쓰기 형태를 근거로 품사를 확인하도록 한다. (가)의 '뿐'은 체언인 '너' 뒤에 붙어서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고, (나)의 '뿐'은 앞말인 '공부할'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 평가 기준 |

(가), (나)의 품사를 정확히 구별하여 쓰고, 각각의 특성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가), (나)의 품사를 정확히 구별하였으나, 각각의 특성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3점
(가), (나)의 품사와 특성의 일부라도 서술한 경우	1점

11 화자의 부름, 대답, 놀람 등을 나타내는 독립언(감탄사)을 추출하고, 문맥에 따른 기능과 의미를 판별하는 문항이다. (가)에서 감탄사는 '야'이고,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낸다. (나)에서 감탄사는 '얘'이고, 부름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에서 감탄사는 '어'이고, 대답의 의미를 나타낸다.

| 평가 기준 |

(가)~(다)의 감탄사를 모두 찾고, 각각의 의미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가)~(다)의 감탄사를 모두 찾았으나, 그 의미의 일부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가)~(다)의 감탄사를 모두 찾았으나, 그 의미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STEP 3 단원별 내신 실전 문제

본문 44쪽

01 ③ **02** ② **03** ① **04** 예시 답안 첫째, 형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둘째, 문장 안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주체의 상태나 성질 등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이다. 셋째, 단어가 나타내는 공통된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5** ① **06** ④ **07** ⑤ **08** ④ **09** ⑤ **10** ③ **11** ① **12** 예시 답안 ㉠은 부사이고 ㉡은 형용사이다. ㉠과 ㉡은 둘 다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지만,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은 형태가 변한다. **13** ② **14** ② **15** ② **16** ④ **17** ④ **18** ② **19** 예시 답안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주어의 역할을 하며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내므로 대명사이다.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부사이다.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고 서술어의 역할을 하며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다. **20** ⑤ **21** ③

01 '짧고(짧다)', '긴(길다)'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2 동사 '달리다'는 활용을 하는 가변어이고, 명사 '달리기'는 활용을 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03 '그것', '너희'는 대명사, '일', '힘', '큰일'은 명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04 '희었고(희다)', '붉었다(붉다)', '고와서(곱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고,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이며,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 평가 기준 |

품사를 정확히 쓰고, 공통점 세 가지를 모두 적절히 서술한 경우	7점
품사를 정확히 쓰고, 공통점 두 가지만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품사를 정확히 쓰고, 공통점 한 가지만 적절히 서술한 경우	3점
품사만 정확히 쓰고, 공통점 세 가지를 모두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05 ㉠에서 '아버지'는 조사 '께서'와 결합하여 '깎고(깎다)'의 주어로 쓰이고 있고, '연필'은 조사 '을'과 결합하여 '깎고(깎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언은 문장에서 몸체가 되는 중심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에서 '연필'은 세 문장에서 모두 형태 변화 없이 쓰이고 있으므로 불변어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에서 대명사 '나', 수사 '하나', 명사 '교실'은 각각 조사 '는', '를', '에서'와 결합하였지만, 명사 '연필'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쓰였다. 따라서 체언이 반드시 조사와 결합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에서 명사 '동생'과 '연필'은 각각 '어린'과 '새'의 꾸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체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꾸밈을 받는 말임을 알 수 있다.

06 '우리나라', '글자', '모습', '수'는 모두 명사이고, '우리'는 대명사이다. '수'는 홀로 쓰일 수 없고 앞말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07 ㉠의 '그'는 대명사, ㉡의 '그'는 체언 '동네'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대명사와 관형사는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대명사 '그'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관형사 '그'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② 관형사 '그'는 체언 앞에서 사물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지만, 대명사 '그'는 사물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말이다.

③ 관형사 '그'는 뒤에 오는 말 '동네'를 수식하지만, 대명사 '그'는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④ 대명사 '그'와 관형사 '그'는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가 아니다.

08 ㉣의 '우리'는 한 팀이 되어 농구를 한 '나와 준서'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09 용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참 예쁘게도 생겼다.'에서 형용사 '예쁘게(예쁘다)' 뒤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였다.

10 '가다'와 같은 동사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아라/-어라',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자', 어떤 일이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ㄴ-/-는-'과도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그럴 수 없다. '고요하다'는 형용사로, '고요해라, 고요하자, 고요한다'와 같이 활용할 수 없다.

11 '머리가 꽤 많이 길었다'에 쓰인 '길었다(길다)'는 '머리카락, 수염 따위가 자라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이고, '다리가 길어서'에 쓰인 '길어서(길다)'는 '잇닿아 있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커서', '큰'은 '크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③ '다정하게', '다정한'은 '다정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④ '낡아서', '낡았다'는 '낡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⑤ '식은', '식었다'는 '식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12 ㉠은 용언 '웃었다(웃다)'를 꾸며 주면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사이고 ㉡은 용언 '웃었다(웃다)'를 꾸며 주지만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형용사이다.

| 평가 기준 |

㉠과 ㉡의 품사를 모두 정확하게 쓰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과 ㉡의 품사를 모두 정확하게 쓰고,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과 ㉡의 품사만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2점
㉠과 ㉡의 품사 중 하나만 정확하게 쓴 경우	1점

13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이면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의 품사는 관형사이다. '빠른'은 '빠르다'의 활용형으로 가변어인 형용사이다.

14 '바로'는 체언 '너'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아주'는 관형사 '헌'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제발'은 문장 전체인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매우'는 부사 '조심조심'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슬그머니'는 용언 '빠져나왔다(빠져나오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5 ㉠의 '새'와 ㉣의 '많이'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형사 '새'와 부사 '많이'는 수식언으로, 수식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관형사 '새'는 명사 '학기', '신발', '가방'을 꾸며 주고, ㉡의 관형사 '모든'은 명사 '생명'을, ㉢의 관형사 '어떤'은 명사 '생각'을 꾸며 주고 있다.
③ ㉡에서 관형사 '모든'에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는 비문법적인 표현이므로,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부사 '많이'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였으므로, 부사는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부사 '과연'은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이다.

16 '환경이'에 쓰인 '이'는 앞말인 체언 '환경'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지만, '여러분은'에 쓰인 조사 '은'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7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말에 붙어 쓰일 뿐, 앞말의 꾸밈을 받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이다.
② '나와 너'에 쓰인 조사 '와'는 단어와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③ '너만'에 쓰인 조사 '만'은 한정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⑤ '일이야'에 쓰인 조사 '이야'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18 '진짜로'는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참으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19 대명사 ㉠은 불변어이며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고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이다. 부사 ㉡은 불변어이며 뒤에 오는 용언 '일어나(일어나다)'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수식언이다. 동사 ㉢은 가변어이며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이고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 평가 기준 |

㉠, ㉡, ㉢의 품사를 모두 정확하게 쓰고,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를 활용하여 그것의 까닭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9점
㉠, ㉡, ㉢ 중 두 개의 품사만 정확하게 쓰고,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를 활용하여 그것의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7점
㉠, ㉡, ㉢ 중 한 개의 품사만 정확하게 쓰고, 품사의 분류 기준 세 가지를 활용하여 그것의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 ㉡, ㉢의 품사만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3점
㉠, ㉡, ㉢ 중 두 개의 품사만 정확하게 쓴 경우	2점
㉠, ㉡, ㉢ 중 한 개의 품사만 정확하게 쓴 경우	1점

20 '소박하다', '소박한'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하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 '소박하다'의 활용형이다.

21 ㉣은 용언 '떨고'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은 체언 '번'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개념 16 단어의 짜임 ❶ – 단어와 형태소

본문 48쪽

1 (1) 형태소 (2) 단어 **2** (1) 풋과일, 이, 매우, 떫다 (2) 풋–, 과일, 이, 매우, 떫–, –다 **3** (1) 하늘, 아버지 (2) 돌다리, 햇밤 (3) 놀았다 **4** (1) 5 (2) 8

2 '풋과일'은 하나의 단어이지만, '풋–'과 '과일'로 쪼갤 수 있다. '떫다'는 구체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떫–'과 문장을 종결하는 문법적 의미를 지닌 '–다'로 쪼개진다.

3 (2) '돌다리'는 '돌'과 '다리', '햇밤'은 '햇–'과 '밤'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3) '놀았다'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놀–'과 과거를 나타내는 '–았–', 문장을 종결하는 문법적 의미를 지닌 '–다'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4 (1) 단어로 분석하면 '동생', '이', '맨발', '로', '뛰었다'이므로 단어의 개수는 모두 5개이다.
(2) 형태소로 분석하면 '동생', '이', '맨–', '발', '로', '뛰–', '–었–', '–다 '이므로 형태소의 개수는 모두 8개이다.

개념 17 단어의 짜임 ❶ – 형태소의 종류

본문 49쪽

1 자립, 의존 **2** 실질, 형식 **3** (1) 의존, 형식 (2) 의존, 실질 **4** ㉠ 자립 ㉡ 의존 ㉢ 형식 ㉣ 형식 **5** (1) ㉠ 손, 지갑 ㉡ 이, 예쁘–, –다 (2) ㉠ 손, 지갑, 예쁘– ㉡ 이, –다

3 (1) '헛–'은 실질 형태소에 붙어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며,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2) '웃–'은 '–다'와 같은 어미와 함께 쓰여야 하므로 의존 형태소이고,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4 '바람'은 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이고, '불–'은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조사인 '이'와 과거를 나타내는 '–었–'은 문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5 (1) ㉠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손'과 '지갑'이다. ㉡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는 조사인 '이'와 '예쁘–'와 '–다'이다.
(2) ㉠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손'과 '지갑', '예쁘–'이다. ㉡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조사인 '이'와 문장이 끝났다는 문법적 의미를 지닌 '–다'이다.

개념 18 단어의 짜임 ❶ – 어근과 접사

본문 50쪽

1 어근 **2** 접사 **3** (1) 강, 물 (2) 장난 **4** (1) 덧– (2) –질 **5** (1) 사과 (2) 풋–

4 (1) '덧–'은 어근 '신'에 붙어서 '겹쳐 신는'의 뜻을 더해 주는 접사이다.
(2) '–질'은 '부채'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접사이다.

5 (1) '풋사과'의 '사과'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중심 부분인 어근이다.
(2) '풋사과'의 '풋–'은 '사과'라는 중심 부분에 '덜익은'이라는 새로운 뜻을 더해 주는 주변 부분인 접사이다.

STEP ❶ 개념 Drill 16~18

본문 51쪽

1 ○ **2** × **3** × **4** ○ **5** 6 **6** 7 **7** 4 **8** 5 **9** × **10** × **11** ○ **12** (1) 자립, 실질 (2) 의존, 형식 **13** (1) 자립, 실질 (2) 의존, 형식 **14** (1) 의존, 형식 (2) 의존, 형식 **15** (1) 의존, 실질 (2) 의존, 실질 **16** 지우: 어근, –개: 접사 **17** 날–: 접사, 고기: 어근 **18** 비: 어근, 옷: 어근 **19** 고집: 어근, 쟁이: 접사 **20** 가을: 어근, 바람: 어근

2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3 '웃다'의 '웃–'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지만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도 있다.

5 '그/소년/이/노래/를/부른다' → 단어: 6개

6 '언니/가/옷/에/물/을/쏟았다' → 단어: 7개

7 '공든/탑/이/무너지랴' → 단어: 4개

8 '은혜/를/원수/로/갚는다' → 단어: 5개

9 '피었다'는 '피–', '–었–', '–다'로 형태소를 나누어야 한다.

10 '밤하늘'은 '밤'과 '하늘'로 형태소를 나누어야 한다.

11 '내린다'에서 '내리-'는 '비나 눈 따위가 오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고, '-ㄴ-'은 사건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14 (1) '처럼'은 조사로서 앞말에 붙어서 앞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므로 형식 형태소이고, 체언에 붙어서 쓰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2) '-겠-'은 '행위에 대한 의지'라는 문법적 의미를 지닌 형식 형태소이면서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15 (1), (2) '보-'와 '예쁘-'는 각각 구체적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므로 실질 형태소이고 혼자 쓰일 수 없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16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사이다.

17 '날-'은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19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52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④ **08** ④ **09** ④ **10** 예시 답안 (1) • 자립 형태소: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 의존 형태소: 이, 없-, -이, 새-, 파랗-, -다 (2) • 실질 형태소: 가을, 하늘, 구름, 한, 점, 없-, 파랗- • 형식 형태소: 이, -이, 새-, -다 **11** 예시 답안 ㉮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고, ㉯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는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01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말한다.
| 오답 풀이 |
②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은 '단어'이다.
③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④ 생각이나 감정의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문장'이다.
⑤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공통의 성질끼리 묶은 것은 '품사'이다.

02 '떫은'은 형용사 어간인 '떫-'과 관형사형 어미인 '-은'의 결합으로, 형태소는 총 2개이다.

03 '자라-'는 동사의 어간으로 실질적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이자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여름'은 명사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
②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③ '가'는 주격 조사로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④ '아주'는 부사로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

04 '-은'은 관형사형 어미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개념 플러스

• 어말 어미

어간 뒤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인 어미 중 어말 어미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어말 어미	종결 어미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어미. '-다', '-구나', '-냐', '-아라/-어라', '-자' 등 예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연결 어미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고', '-지만', '-아서/-어서' '-(으)면', '-(으)니', '-게' 등 예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전성 어미	용언이 다른 품사(명사, 관형사, 부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 '-(으)ㄴ', '-는', '-게', '-도록', '-(으)ㅁ', '-기' 등 예 걸음을 멈춘 사람들이 빠르게 뒤를 돌아보았다.

• 전성 어미의 분류

명사형	용언이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예 좋음
관형사형	관형사처럼 체언을 꾸미는 용언의 어미 예 좋은
부사형	용언이 부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어미 예 좋게

05 '달'은 명사, '동그랗-'과 '뜨-'는 각각 형용사와 동사의 어간으로 실질 형태소이고, '이'는 조사, '-게', '-ㄴ-', '-다'는 어미로 형식 형태소이다.

06 '온도를'에서 '를'은 조사로 체언에 붙어서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자, 단어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개울'은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고, '은'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② '도시'는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고, '의'는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④ '낮추-'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고, '-는'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⑤ '있다'의 '있-'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지만, 용언의 어간일 뿐 '있-' 자체가 단어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7 어근은 접사와 붙어 파생어를 만들거나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근 하나로 한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 오답 풀이 |

① 어근은 단어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모든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다.
②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므로, 자립 형태소는 모두 어근이라 할 수 있다.
③ 어근에 접사가 붙어 새로운 뜻을 더하는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⑤ 어근은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말한다.

08 '눈물'과 '돌다리'는 각각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인 '눈 + 물', '돌 + 다리'로 분석할 수 있다.

09 '밤낮'은 '손지갑'과 마찬가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단어를 만든 것으로, 자립 형태소로만 구성된 단어이다.

10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 형태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자립성 유무와 실질적 의미 유무라는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문장을 분석할 때 체언과 수식언뿐만 아니라 조사, 접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용언의 어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평가 기준 |

(1)과 (2)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1)과 (2) 중 하나를 불완전하게 서술한 경우	3점
(1)과 (2) 중 일부라도 구분하여 서술한 경우	1점

11 '어근'과 '접사'라는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결합 원리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고, ㉯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는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 평가 기준 |

㉮~㉰의 단어 구성 방식과 문법적 용어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의 단어 구성 방식이나 문법적 용어를 불완전하게 서술한 경우	3점
㉮~㉰의 단어 구성 방식이나 문법적 용어 중 일부만 적은 경우	1점

개념 19 단어의 짜임 ❷ – 단일어와 복합어

본문 54쪽

1 단일어 **2** 어근, 접사 **3** (1) 풀 (2) 책가방, 지우개
4 (1) 얼굴 (2) 봄비 (3) 재롱둥이 **5** (1) 맨발 (2) 발바닥

4 (2) '봄비'는 어근 '봄'과 어근 '비'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3) '재롱둥이'는 어근 '재롱'과 접사 '-둥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5 (1)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맨-'과 어근 '발'이 결합하면 '아무 것도 신지 않는 발'이라는 뜻의 복합어 '맨발'이 된다.
(2) 어근 '발'과 어근 '바닥'이 결합하면 '발 아래쪽의, 땅을 밟는 평평한 부분'을 뜻하는 복합어 '발바닥'이 된다.

개념 20 단어의 짜임 ❷ – 합성어와 파생어

본문 55쪽

1 합성어, 파생어 **2** (1) 앞뒤 (2) 부채질 **3** (1) 날고기 (2) 바느질 **4** (1) 개집 (2) 개살구

3 (1) '날짐승'은 동사 어간 '날-'(어근)에 '짐승'(어근)이 붙은 합성어이다. '날고기'는 접사 '날-'과 '고기'(어근)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날고기'의 '날-'은 '익지 않은'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접두사이다.
(2) '바느질'은 어근 '바늘'과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뜻을 더해 주는 접미사이다. '바늘구멍'은 합성어이다.

4 '개'는 '동물'을 의미하는 어근이고,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이다.
(1) 어근 '개'와 어근 '집'을 결합하여 합성어 '개집'을 만들 수 있다.
(2) 접사 '개-'와 어근 '살구'를 결합하여 파생어 '개살구'를 만들 수 있다.

개념 21 새말의 형성 원리

본문 56쪽

1 새말 **2** 파생 **3** (1) 둘레(어근), 길(어근), 합성어 (2) 배낭(어근), -족(접사), 파생어 **4** (1) 댓글, 전자책 (2) 금손 (3) 엄지족 (4) 개취

4 (1) '댓글'은 외국어 '리플'을 가져와 우리말로 순화한 것이다. '전자책'은 외국어 'e-book'을 가져와 우리말로 순화한 것이다.
(2) '금손'은 어근 '금'과 어근 '손'의 합성어로,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 '엄지족'은 어근 '엄지'에 접사 '-족'을 결합한 파생어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4) '개취'는 '개인의 취향'에서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줄임말이다.

STEP 1 개념 Drill 19~21

본문 57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1) 단일어 (2) 파생어 **14** (1) 합성어 (2) 단일어 **15** (1) 합성어 (2) 복합어
16 (1) 복합어 (2) 파생어 **17** ㉢ **18** ㉣ **19** ㉡ **20** ㉠

1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어근만으로도 단어를 이룰 수 있다.

4 새말은 기존의 단어 형성 방법인 합성과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5 '네티즌'을 순화한 '누리꾼'처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말도 새말로 인정한다.

7 '보름달'은 단어의 짜임이 '보름(어근) + 달(어근)'로 합성어이다.

8 '개떡'은 단어의 짜임이 '개-(접사) + 떡(어근)'으로 파생어이다.

11 '덧신'은 접사 '덧-'과 어근 '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14 (1) '바늘방석'은 어근 '바늘'과 어근 '방석'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2) '마음'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15 (1) '봄볕'은 어근 '봄'과 어근 '볕'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2) '봄바람'은 어근 '봄'과 어근 '바람'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복합어이다.

17 '엄지족'은 어근 '엄지'와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의 무리'를 뜻하는 접사 '-족'을 결합하는 파생의 방법을, '둘레길'은 어근 '둘레'와 어근 '길'을 결합하는 합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58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③ **08** ① **09** ⑤ **10** (예시 답안) ⓐ: 파생어 ⓑ: 접두사 ⓒ: 접미사 ⓓ: 부사 **11** (예시 답안) ⓐ: 순화 ⓑ: 첫 글자 ⓒ: 단어의 일부

01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지 파생어와 합성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일컫는 말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단어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인 어근과 어근에 붙어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 주는 주변 부분인 접사를 구성 요소로 하여 만들어진다.
②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고 한다.
③ 복합어 중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④ 합성어는 어근이 둘 이상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02 '장대비'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무지개', '동생', '오이', '사과'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03 ㉠은 '군 + 밤'(어근 + 어근), ㉢은 '부슬 + 비'(어근 + 어근), ㉣은 '손 + 수건'(어근 + 어근)으로 구성된 합성어이고, ㉡은 '낚시 + -꾼'(어근 + 접사), ㉤은 '치- + 솟다'(접사 + 어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04 합성어는 '날짐승'(날 + 짐승), '콩국수'(콩 + 국수), '뛰어놀다'(뛰어 + 놀다)로 모두 3개이다.

| 오답 풀이 |

① 어근이 하나인 단어는 '나무' 하나이다.
② 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파생어는 '맨발', '가위질'로 모두 2개이다.
③ 접사가 둘 이상 포함된 단어는 없다.
④ 복합어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는 파생어 '맨발', '가위질'과 합성어 '날짐승, 콩국수, 뛰어놀다'로 모두 5개이다.

05 '장난꾸러기', '꾀돌이', '겁쟁이', '소리꾼'은 모두 접사가 결합하여 뜻을 더해 주기만 하지만, '먹이'는 접사가 결합하여 뜻을 더해 줄 뿐 아니라 품사도 바꿔 주었다.

06 '덮밥'은 용언의 어간인 '덮–'이 명사인 '밥'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우리말 배열법에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07 '아버지'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08 새말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려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로, 사전에 등재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09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10 '햇사과'와 '정성껏'은 모두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햇사과'는 접두사 '햇–'이 붙어 명사 품사를 유지하는 반면, '정성껏'은 접미사 '–껏'이 결합하여 명사를 부사로 품사를 바꾼다는 차이가 있다.

| 평가 기준 |

ⓐ~ⓓ에 들어갈 말을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4점
ⓐ~ⓓ에 들어갈 말 중 세 개를 정확하게 쓴 경우	3점
ⓐ~ⓓ에 들어갈 말 중 두 개를 정확하게 쓴 경우	2점
ⓐ~ⓓ에 들어갈 말 중 한 개를 정확하게 쓴 경우	1점

11 누리 소통망은 외국어 표현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우리 고유어 중심의 알기 쉬운 말로 바꾼 것이므로, 문맥상 '순화'가 적절하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문장에서 핵심 어휘인 '영혼'과 '끌어모으다'의 머리글자만을 추출해 결합한 축약 방식이므로 '첫 글자'가 적절하다. 네티켓은 '네트워크(Network)'의 앞부분과 '에티켓(Etiquette)'의 뒷부분을 떼어내 합성하였으므로, 빈칸에는 단어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평가 기준 |

ⓐ~ⓒ에 들어갈 말을 모두 제대로 쓴 경우	3점
ⓐ~ⓒ에 들어갈 말 중 두 개를 제대로 쓴 경우	2점
ⓐ~ⓒ에 들어갈 말 중 한 개를 제대로 쓴 경우	1점

개념 22 어휘의 양상과 쓰임 – 세대, 분야, 매체

본문 62쪽

1 어휘 **2** 세대 **3** 줄임말 **4** 한자어

3 인터넷 매체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다'의 줄임말인 '열공',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인 '중꺾마'처럼 줄임말을 많이 쓴다.

4 〈보기〉를 참고할 때, 전문어는 의학이나 법률 등 특정 전문 분야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디스펩시아(dyspepsia)', '안티(antibiotics)'와 같은 외래어나 '원고(原告)', '피고(被告)', '청구(請求)', '기각(棄却)'과 같은 한자어가 많다.

개념 23 단어의 의미

본문 64쪽

1 유의 관계 **2** 상하 **3** 주변적 의미 **4** 동음이의어 **5** (1) ㉠, ㉤ (2) ㉡, ㉣ (3) ㉢, ㉥ **6** ④ **7** (1) 유의 관계 (2) 상하 관계 (3) 반의 관계 **8** (1) 약하다 (2) 싫다 (3) 나쁘다 **9** (1) 동음이의어 (2) 유의 관계 (3) 반의 관계 **10** (1) 동음이의어 (2) 다의어 **11** 차다

6 ①, ②, ③, ⑤는 반의 관계이고 ④는 유의 관계이다.

9 (1) '문틈에 끼다'의 '끼다'는 '벌어진 사이에 들어가 죄이고 빠지지 않게 되다.'라는 뜻의 '끼이다'의 준말이고, '안개가 끼다'의 '끼다'는 '안개나 연기 따위가 퍼져서 서리다.'라는 뜻의 단어이다. 두 단어의 의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동음이의어이다.
(2) '오르다'와 '타다'는 모두 '탈것에 몸을 얹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유의 관계에 있다.
(3) '짧다'와 '길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오래지 않다'와 '오래다'라는 대립되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반의 관계에 있다.

10 (1) '눈이 내린다'에서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뜻하는 것이고, '친구의 눈'에서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뜻하는 것이다. 의미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동음이의어이다.
(2)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에 붙어서 몸을 받치며 서거나 걷거나 뛰게 하는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 '의자 다리'처럼 '물건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때의 '다리'는 의미 사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의어이다.

STEP 1 개념 Drill 22~23

본문 65쪽

1 × **2** ○ **3** ○ **4** × **5** ○ **6** × **7** ○
8 전문어 **9** 청소년층 **10** 진지 **11** 사이 **12** 낯
13 ㉢ **14** ㉣ **15** 신다 **16** 입다 **17** 쓰다
18 동음이의어 **19** 다의어

4 다의 관계는 하나의 단어가 기본 의미와 연관이 있는 주변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6 '고희연', '칠순', '별고', '무탈'은 한자어에다 예스러운 표현으로 기성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10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에게 말할 때는 '밥'의 높임말인 '진지'를 써야 한다.

11 '친구와 ( )이/가 멀어졌다.'에서는 '서로 맺은 관계. 또는 사귀는 정분'이라는 주변적 의미가 있는 '사이'를 써야 한다.

12 '그를 대할 ( )이 없다.'에서는 '남을 대할 만한 체면'이라는 주변적 의미가 있는 '낯'을 써야 한다.

13 ㉠, ㉡, ㉣은 상하 관계이고, ㉢은 반의 관계이다.

18 곤충을 뜻하는 '벌'과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는 고통'을 뜻하는 '벌'은 의미들 사이에 연관이 없으므로 동음이의어이다.

19 신체 부위를 뜻하는 '손'과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손'은 의미 사이에 관련이 있으므로 다의어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66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③ **05** ② **06** ④
07 ⑤ **08** ③ **09** ③ **10** 예시 답안 (1) 의사와 간호사 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하였으나, 간호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전문어는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효율적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만, 집단이 다른 사람과는 소통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11** 예시 답안 ㉠의 경우 '할아버지 – 할머니'는 성별, '할아버지 – 아버지'는 세대라는 한 가지 의미 요소만 달라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할아버지 – 어머니'는 성별과 세대라는 두 가지 의미 요소가 달라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01 어휘는 세대나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전반과 개인이 구사하는 어휘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02 〈보기〉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로, 청소년들은 줄임말이나 유행어, 인터넷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예스러운 표현이나 한자어의 사용은 기성세대 언어의 특성이다.
④, ⑤ 격식을 갖춘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기성세대 언어의 특성이고, 의미가 정밀하고 자세한 어휘의 사용은 전문어의 특성이다.

03 〈보기〉에 사용된 '피고인', '공소 사실', '혐의', '범의' 등의 어휘는 법률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문어로, 전문어의 경우 의미가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

0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휘는 인터넷 언어이고, '별고'는 예스러운 한자어로 기성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05 동음이의어는 소리가 같지만 뜻은 다른 말을 의미한다.

06 〈보기〉는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유의 관계를 갖는 유의어이다. 이와 유사한 관계는 '빛이 없어 밝지 아니하다'는 의미의 '어둡다'와 '아주 까맣게 어둡다'의 의미의 '캄캄하다'이다.
| 오답 풀이 |
① '꽃 – 장미'는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이다.
② '쉽다 – 어렵다'는 뜻이 반대되는 반의 관계이다.
③ '교통수단 – 지하철'은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이다.
⑤ '상승하다 – 하강하다'는 대립되는 의미를 갖는 반의 관계이다.

07 〈보기〉에서는 '서다'라는 단어의 반의어가 문맥에 따라 각각 '앉다', '작동하다', '무너지다'로 다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단어가 쓰이는 문맥에 따라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8 '미술'과 '음악', '무용', '연극'은 모두 예술의 하위 영역이므로, '예술'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의 상위어이다.

09 〈보기〉에서 '큰 배'의 '배'는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을 뜻하고, '배가 나온다'의 '배'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를 뜻한다. 즉 두 '배'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동음이의어의 관계이다. 이와 같은 관계의 단어는 소리는 '풀'로 같지만 각각 '쌀이나 밀가루 따위의 전분질에서 빼낸 끈끈한 물질', '초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미가 다른 ③이다.

10 전문 집단에서 쓰이는 전문어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고, 전문어가 의사소통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항이다.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효율적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과는 소통이 어렵다는 특성을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 기준 |

(1)

집단 내 의사소통과 집단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원활성 여부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2점
집단 내 의사소통과 집단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원활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	1점

(2)

(1)의 활동을 바탕으로 전문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경우	2점
(1)의 활동을 바탕으로 전문어의 특성을 일부만 서술한 경우	1점

11 반의 관계는 한 쌍의 반어어 사이에 하나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들은 공통되어야 한다.

| 평가 기준 |

반의 관계의 성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과 ㉡의 차이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과 ㉡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했으나 반의 관계의 성립 조건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한 경우	3점
반의 관계의 성립 조건에 근거하지는 못했으나 ㉠과 ㉡의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한 경우	1점

STEP 3 단원별 내신 실전 문제

본문 69쪽

01 ② **02** ④ **03** ④ **04** ① **05** ① **06** 예시 답안 ㉠은 어근 '새'와 어근 '살'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은 접사 '새-'와 어근 '파랗-(파랗다)'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07** ④ **08** ③ **09** ③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예시 답안 ㉠은 '속에 들어 있는 기체나 액체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를 뜻하고 ㉡은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를 뜻하는 단어로, 둘은 의미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의 관계를 맺고 있다.

01 '는'과 '를'은 조사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너'와 '우리'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밝게'의 형태소는 어간 '밝-', 어미 '-게'이고, '비추는'의 형태소는 어간 '비추-', 어미 '-는'이므로, 모두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해님'은 어근 '해'와 접사 '-님'으로, '달님'과 '별님' 역시 각각 어근 '달', '별'과 접사 '-님'으로 분석되므로 셋 다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⑤ '같았어'의 형태소는 어간 '같-', 어미 '-았-', '-어'이므로 세 개의 형태소가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이다.

02 '기다리고'는 기본형 '기다리다'의 활용형으로, 어간 '기다리-'와 어미 '-고'의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된다.

03 '모자람'은 '기준에 미치지 못함.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명사로 어근 '모자라-'와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ㅁ'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어근 '모자라-'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고, 접미사 '-ㅁ'은 형식적 의미를 지닌 형식 형태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대명사 '그', 명사 '집', 수사 '셋'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다.
② '셋이'의 '이'와 '모자람이'의 '이'는 조사인데,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③ '살기에는'의 형태소는 '살-', '-기', '에', '는'으로 분석된다. 용언의 어간 '살-'은 실질 형태소이고, 어미 '-기', 조사 '에'와 '는'은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살기에는'은 한 개의 실질 형태소와 세 개의 형식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⑤ '없겠구나'의 형태소는 용언의 어간 '없-', 어미 '-겠-'과 '-구나'의 세 개로 분석되며,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04 '군살'은 접사 '군-'과 어근 '살'이, '덮개'는 어근 '덮-'과 접

사 '-개'가, '먹이'는 어근 '먹-'과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밤꽃'은 어근 '밤'과 '꽃'이, '손발'은 어근 '손'과 '발'이, '창문'은 어근 '창'과 '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5 '군밤'은 어근 '굽-(굽다)'과 어근 '밤'이 결합한 합성어이고, '군소리'는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사 '군-'과 어근 '소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나라'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우리나라'는 어근 '우리'와 '나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③ '닫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여닫다'는 어근 '열-(열다)'과 '닫-(닫다)'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④ '비옷'은 어근 '비'와 '옷'으로, '비바람'은 어근 '비'와 '바람'으로 이루어진 합성이다.
⑤ '솟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치솟다'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사 '치-'와 어근 '솟-(솟다)'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06 ㉠은 '부스럼이나 상처가 난 자리에 새로 돋아난 살'을 뜻하는 단어로 어근 '새'와 '살'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은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사 '새-'와 어근 '파랗-(파랗다)'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평가 기준 |

㉠과 ㉡을 합성어와 파생어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과 ㉡의 짜임을 모두 적절하게 분석한 경우	5점
㉠과 ㉡을 합성어와 파생어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과 ㉡의 짜임 중 하나만 적절하게 분석한 경우	3점
㉠과 ㉡을 합성어와 파생어로만 정확하게 분류한 경우	1점

07 ㉠의 '개떡'과 '개살구'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사 '개-'와 어근 '떡', '살구'가 각각 결합한 파생어이다. '날개'와 '지우개'는 각각 어근 '날-(날다)', '지우-(지우다)'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의 '개밥'은 어근 '개'와 '밥', '개집'은 어근 '개'와 '집', '멍멍개'는 어근 '멍멍'과 '개', '사냥개'는 어근 '사냥'과 '개'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08 '입방아'는 어근 '입'과 '방아'가 결합하여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융합 합성어이다. '가시방석'은 어근 '가시'와 '방석'이 결합하여 '앉아 있기에 아주 불안스러운 자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융합 합성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산길', '돌다리'는 종속 합성어로 ㉡의 예이다.
② '앞뒤', '오르내리다'는 대등 합성어로 ㉠의 예이다.
④ '덮밥'은 '덮다'의 어간 '덮-'에 바로 이어서 명사 '밥'이, '높푸르다'는 '높다'의 어간 '높-'에 바로 이어서 형용사 '푸르다'가 결합한 형태로 우리말의 어순이나 결합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의 예이다.
⑤ '새해'는 어근 '새'와 '해'가 결합한 합성어로 관형사 '새'가 체언 '해'를 꾸며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길바닥'은 어근 '길'과 '바닥'이 결합한 합성어로 체언 '길'이 체언 '바닥'을 꾸며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09 '깨끗이'는 어근 '깨끗'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10 '둘레길'은 어근 '둘레'와 '길'이 결합하는, 합성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혼밥', '소확행', '아점', '베프'는 모두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말이다.

11 (가)에서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와 (나)에서 친구 시연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예나의 어휘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진로 분야에서 쓰이는 말인 '교사', '화가', '약사', '웹툰 작가'는 직업을 나타내는 말로 전문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13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동일하다'는 '어떤 것과 비교하여 똑같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같다'의 유의어이다. '같다'의 반의어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지닌 '다르다'이다.

14 ㉠과 ㉡의 '뽑았다(뽑다)'는 둘 이상의 뜻을 지닌 하나의 단어인 다의어이다. '뽑다'의 중심 의미는 '박힌 것을 잡아당기어 빼내다.'이고, ㉠의 뜻인 '속에 들어 있는 기체나 액체를 밖으로 나오게 하다.'와 ㉡의 뜻인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내다.'는 '뽑다'의 주변 의미에 해당한다. ㉠과 ㉡은 의미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다의어이다.

| 평가 기준 |

㉠과 ㉡의 의미 관계와 뜻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과 ㉡의 의미 관계는 적절하게 썼으나 뜻을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또는 ㉠과 ㉡의 뜻은 적절하게 썼으나 의미 관계를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2 음운 체계와 문자 체계

개념 01 음운의 개념과 종류

본문 74쪽

1 뜻 **2** 자음, 모음 **3** 소리의 길이 **4** (1) ㄹ, ㄴ (2) ㅜ, ㅏ (3) ㅁ, ㅂ **5** (1) ㅍ, ㅏ, ㄷ, ㅗ / 4 (2) ㅅ, ㅏ, ㅇ, ㅓ / 4

3 사람의 '눈(眼)'은 짧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은 길게 발음한다. 소리의 길이 차이만으로 뜻이 구별되므로, 음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소리의 길이이다.

5 (1) '파도'의 음운은 'ㅍ, ㅏ, ㄷ, ㅗ'로 모두 4개이다.
(2) '상어'의 음운은 'ㅅ, ㅏ, ㅇ, ㅓ'로 모두 4개이다. '어'에서 초성의 'ㅇ'은 소리값이 없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개념 02 모음의 분류

본문 75쪽

1 단모음 **2** (1)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 (2)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3** 없, 이중 모음 **4** (1) 단모음 (2) 이중 모음 **5** (1) 2, 1 (2) 2, 2 (3) 2, 1

2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모음은 단모음이고 바뀌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ㅚ'와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이다.

개념 03 단모음의 분류 – ❶ 혀의 최고점의 위치

본문 76쪽

1 최고점 **2** 전설 모음, 후설 모음 **3** (1) ㉠ (2) ㉡ **4** (1) 위기, 개최 (2) 사전, 도움 **5** (1) × (2) ○ (3) ○

4 (1) '위기'의 'ㅟ'와 'ㅣ', '개최'의 'ㅐ'와 'ㅚ'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전설 모음이다.
(2) '사전'의 'ㅏ'와 'ㅓ', '도움'의 'ㅗ'와 'ㅜ'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후설 모음이다.

5 (1) 'ㅐ'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전설 모음이고, 'ㅏ'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후설 모음이다.
(3) 'ㅐ'와 'ㅟ'는 모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인 전설 모음이다.

개념 04 단모음의 분류 – ❷ 입술 모양

본문 77쪽

1 모양 **2** 원순 모음 **3** (1) ㅟ, ㅚ, ㅜ, ㅗ (2) ㅣ, ㅔ, ㅐ, ㅡ, ㅓ, ㅏ **4** (1) 원순 (2) 원순 (3) 평순 (4) 평순 **5** (1) ㅡ, ㅓ, ㅏ (2) ㅟ, ㅚ (3) ㅣ, ㅔ, ㅐ

3 (1)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은 원순 모음으로 'ㅟ, ㅚ, ㅜ, ㅗ'가 이에 해당한다.
(2)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은 평순 모음으로 'ㅣ, ㅔ, ㅐ, ㅡ, ㅓ, ㅏ'가 이에 해당한다.

4 (1) 'ㅗ', 'ㅜ'는 원순 모음이다.
(2) 'ㅚ', 'ㅜ'는 원순 모음이다.
(3) 'ㅣ', 'ㅐ', 'ㅔ'는 평순 모음이다.
(4) 'ㅏ', 'ㅓ', 'ㅣ'는 평순 모음이다.

개념 05 단모음의 분류 – ❸ 혀의 높이

본문 78쪽

1 고, 중, 저 **2** (1) ㅡ (2) ㅐ **3** ⑤ **4** (1) 물, 일 (2) 옷 (3) 남, 해

2 (1) 'ㅡ'는 고모음, 'ㅓ'는 중모음, 'ㅏ'는 저모음이다. 이들 모음 중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모음은 'ㅡ'이다.
(2) 'ㅣ'는 고모음, 'ㅔ'는 중모음, 'ㅐ'는 저모음이다. 이들 모음 중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모음은 'ㅐ'이다.

4 (1) '물'과 '일'은 각각 고모음 'ㅜ'와 'ㅣ'가 쓰였다.
(2) '옷'은 중모음 'ㅗ'가 쓰였다.
(3) '남'과 '해'는 각각 저모음 'ㅏ'와 'ㅐ'가 쓰였다.

STEP 1 개념 Drill 01~05

본문 79쪽

1 × **2** ○ **3** ○ **4** ○ **5** × **6** ㅣ, ㅏ **7** ㅁ, ○ **8** ⓐ **9** ⓐ **10** × **11** ○ **12** ○ **13** × **14** (1) 단모음 (2) 이중 모음 **15** (1) 전설 모음 (2) 후설 모음 **16** (1) 중모음 (2) 고모음 (3) 저모음 **17** (1) 평순 모음 (2) 원순 모음 **18** 후설 모음 **19** 중모음 **20** 평순 모음

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5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다.

8 얼음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눈(雪)'은 길게 발음하고, 감각 기관을 의미하는 '눈(眼)'은 짧게 발음한다.

9 음성 기호를 의미하는 '말(言)'은 장음이고, 짐승을 의미하는 '말(馬)'은 단음이다.

10 '백'에 쓰인 모음 'ㅐ'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이다.

13 '키'에 쓰인 모음 'ㅣ'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단모음이다.

18 '소나무'에 쓰인 모음 'ㅗ, ㅏ, ㅜ'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인 후설 모음이다.

19 '세포'에 쓰인 모음 'ㅔ, ㅗ'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은 중모음이다.

20 '기대'에 쓰인 모음 'ㅣ, ㅐ'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80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③ **05** ⑤ **06** ①
07 ④ **08** ⑤ **09** ④ **10** ④ **11** (1) 예시 답안 ㉠과 ㉡은 비분절 음운인 소리의 길이에 의해 뜻이 구별된다. 신체 부위인 '눈'은 짧게,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된다. (2) 예시 답안 ㉢과 ㉣은 분절 음운인 모음에 의해 뜻이 구별된다. 종성은 같으나 중성에 쓰인 모음이 각각 'ㅗ'와 'ㅜ'로 다르고 이에 따라 뜻이 구별된다.
12 예시 답안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보기〉의 모음은 저모음 'ㅐ, ㅏ', 중모음 'ㅔ, ㅓ', 고모음 'ㅣ, ㅡ'로 분류할 수 있다.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음절이다.

02 ㉡의 자음의 개수는 4개이고, 모음의 개수는 2개이므로, 자음의 개수가 모음의 개수보다 더 많다.

| 오답 풀이 |
① ㉠의 자음의 개수는 2개(ㄹ, ㅁ), 모음의 개수는 2개(ㅓ, ㅡ)이므로 자음과 모음의 총 개수는 4개이다.
② ㉠의 자음의 개수(ㄹ, ㅁ)와 모음의 개수(ㅓ, ㅡ)는 각 2개씩으로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같다.
④ ㉢의 모음의 개수는 3개(ㅜ, ㅓ, ㅏ), 자음의 개수는 5개(ㅈ, ㅁ, ㄱ, ㅂ, ㅂ)이므로 자음의 개수가 모음의 개수보다 많다.
⑤ ㉡의 모음의 개수(ㅐ, ㅣ)는 2개, ㉢의 모음의 개수(ㅜ, ㅓ, ㅏ)는 3개이므로 ㉡보다 ㉢의 모음의 개수가 더 많다.

03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냉면'의 'ㅕ'이다.

04 발음 기관에 의한 공기 흐름의 방해 여부는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니라 모음과 자음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05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을 만든다. '그녀'의 'ㅕ'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ㅓ'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06 ㉠의 'ㅜ'는 고모음이다.

07 음운 체계표상 단모음 중에 저모음은 'ㅐ'와 'ㅏ'가 있다.

08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인 단모음은 'ㅣ, ㅔ, ㅐ' 3개이다.

09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모음이면서 또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은 'ㅔ'이다.

| 오답 풀이 |
① 'ㅣ'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다.
② 'ㅐ'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저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다.
③ 'ㅗ'는 혀의 최고점이 뒤에 있는 후설 모음이고, 혀의 높이는 중간인 중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⑤ 'ㅟ'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고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10 '일행'의 'ㅣ'와 'ㅐ'는 모두 전설 모음이다.

11 ㉠과 ㉡은 형태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발음할 때 소리

의 길이로 뜻이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은 짧은 소리, ㉡은 긴 소리로 발음하여 각각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과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의미한다. ㉢과 ㉣은 자음은 같고, 모음이 각각 'ㅗ'와 'ㅜ'로 달라 각각 '전부의, 또는 모두의'와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天運)과 기수(氣數)'라는 의미로 구분된다.

| 평가 기준 |

(1)

㉠과 ㉡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의 종류와 비분절 음운 여부까지 정확히 쓴 경우	2점
㉠과 ㉡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의 종류를 쓰되 비분절 음운의 여부는 밝혀 쓰지 못한 경우	1점

(2)

㉢과 ㉣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과 분절 음운 여부까지 정확히 쓴 경우	2점
㉢과 ㉣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의 종류를 쓰되 분절 음운의 여부는 밝혀 쓰지 못한 경우	1점

12 혀의 높이에 따라 단모음을 분류하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되는데, 혀의 높이가 낮을수록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커진다. 즉 저모음이 가장 입이 많이 벌어지고, 고모음이 가장 적게 벌어진다. 따라서 〈보기〉의 모음을 〈조건〉에 따라 분류하면 저모음 'ㅐ, ㅏ', 중모음 'ㅖ, ㅓ', 고모음 'ㅣ, ㅡ'로 나열할 수 있다.

| 평가 기준 |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와 입이 벌어지는 정도에 따른 나열이 모두 정확하게 된 경우	5점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이 불완전한 경우	3점
두 조건 중 일부가 맞은 경우	1점

개념 6 자음의 분류 – ❶ 소리 나는 위치

본문 82쪽

1 위치 **2** 입술, 잇몸 **3** (1) ㅈ, ㅉ, ㅊ (2) ㄱ, ㄲ, ㅋ, ㅇ **4** (1) ㅎ (2) ㅅ **5** (1) 비밀 (2) 회사 (3) 까치

5 (1) '비밀'은 입술소리인 'ㅂ', 'ㅁ'과 잇몸소리인 'ㄹ'이 쓰였다.
(2) '회사'는 목청소리인 'ㅎ'과 잇몸소리인 'ㅅ'이 쓰였다.
(3) '까치'는 여린입천장소리인 'ㄲ'과 센입천장소리인 'ㅊ'이 쓰였다.

개념 7 자음의 분류 – ❷ 소리 내는 방법

본문 83쪽

1 방법 **2** 파열음, 마찰음 **3** (1) ㄴ, ㅁ, ㅇ (2) ㄹ **4** (1) ㄱ, ㄷ (2) ㅅ, ㅎ (3) ㅈ, ㅊ **5** (1) 말, 노래 (2) 밤, 도망 (3) 사자

3 (1)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으로 'ㄴ, ㅁ, ㅇ'이 여기에 해당한다.
(2)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혀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유음으로 'ㄹ'이 여기에 해당한다.

5 (1) '말'은 비음 'ㅁ'과 유음 'ㄹ'이 포함되었다. '노래'는 비음 'ㄴ'과 유음 'ㄹ'이 포함되었다.
(2) '밤'은 파열음 'ㅂ'과 비음 'ㅁ'이 포함되었다. '도망'은 파열음 'ㄷ'과 비음 'ㅁ, ㅇ'이 포함되었다.
(3) '사자'는 마찰음 'ㅅ'과 파찰음 'ㅈ'이 포함되었다.

개념 8 자음의 분류 – ❸ 소리의 세기

본문 84쪽

1 세기 **2** 된소리, 거센소리 **3** (1) ㅂ, ㄱ, ㅅ (2) ㅃ, ㄲ, ㅆ (3) ㅍ, ㅋ **4** (1) ㄱ (2) ㄴ **5** (1) 튼튼하다 (2) 잠잠하다 (3) 쓸쓸하다

5 (1) '튼튼하다'의 'ㅌ'은 파열음이면서 거센소리이다.
(2) '잠잠하다'의 'ㅈ'은 파찰음이면서 예사소리이다.
(3) '쓸쓸하다'의 'ㅆ'은 마찰음이면서 된소리이다.

STEP ❶ 개념 Drill 06~08

본문 85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예사소리 **13** 파열음 **14** 잇몸소리 **15** 입술소리, ㅁ, 비음 **16** 잇몸소리, ㄹ, 유음 **17** 센입천장소리, ㅈ, 파찰음 **18** 여린입천장소리, ㅋ, 파열음 **19** 목청소리, ㅎ, 마찰음 **20** ㉮ ㄸ **21** ㉯ ㅎ, ㉰ ㄹ

2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는 파열음이다.

4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는 것은 파열음, 파찰음이다.

5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안울림소리이고, 비음과 유음은 울림소리이다.

6 안울림소리 중 거센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마찰음이다.

7 'ㄴ, ㅁ, ㅇ'은 비음이다.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입술소리에는 'ㅂ, ㅃ, ㅍ, ㅁ'이 있다.

11 'ㄷ, ㄸ, ㅌ'은 파열음이자 잇몸소리이다.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파찰음에는 'ㅈ, ㅉ, ㅊ'이 있다.

12 '소식'의 'ㅅ'과 'ㄱ'은 모두 예사소리에 해당한다.

13 '바다'의 'ㅂ'과 'ㄷ'은 모두 파열음에 해당한다.

14 '소설'의 'ㅅ'과 'ㄹ'은 모두 잇몸소리에 해당한다.

21 ㉮에는 목청소리이자 마찰음인 'ㅎ'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잇몸소리이자 유음인 'ㄹ'이 들어가야 한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86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① **05** ⑤ **06** ④
07 ③ **08** ④ **09** ② **10** ⑤ **11** (1) 예시 답안 'ㄷ'과 'ㅌ'은 소리 나는 위치가 모두 잇몸소리이고, 소리 내는 방법이 모두 파열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 예시 답안 'ㄷ'과 'ㅌ'은 소리의 세기에서 'ㄷ'은 예사소리이고, 'ㅌ'은 거센소리라는 차이점이 있다.

01 발음할 때 입안이 울리는 것은 '울림소리'의 특징으로, 자음의 일부(ㄴ, ㅁ, ㅇ, ㄹ)와 모든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자음은 모음과 달리 혼자서는 발음할 수 없다.
② 자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눌 수 있다.
⑤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소리를 내는 통로가 좁아져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으며 나는 소리이다.

02 '마음'의 'ㅁ'은 소리 나는 위치가 양 입술 사이인 입술소리이다.

| 오답 풀이 |

② 센입천장소리는 'ㅈ, ㅉ, ㅊ'인데, '소리'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ㄲ, ㅋ, ㅇ'인데, '지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잇몸소리에는 'ㄴ, ㄷ, ㄸ, ㅌ, ㄹ, ㅅ, ㅆ'이 있는데, '소리'에는 'ㅅ'과 'ㄹ'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음'에는 잇몸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⑤ 목청소리에는 'ㅎ'이 있는데, '소리'와 '지시'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

03 자음 중 울림소리는 'ㄴ, ㅁ, ㅇ, ㄹ'이고 나머지 자음은 안울림소리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울림소리가 포함된 단어는 'ㅁ', 'ㄹ', 'ㄴ'으로 구성된 ㉡과 'ㅁ'으로 구성된 ㉣이다.

04 'ㅁ, ㅂ'은 입술소리, 'ㄴ, ㄷ, ㄹ, ㅅ'은 잇몸소리, 'ㅈ'은 센입천장소리, 'ㄱ, ㅇ'은 여린입천장소리, 'ㅎ'은 목청소리이다.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분류는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5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것은 유음으로, 유음에 해당하는 자음은 'ㄹ'이다. 'ㅇ'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06 거센소리는 파열음과 파찰음에만 포함된다.

07 '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잇몸소리,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소리의 세기에 따라 거센소리, 울림의 여부에 따라 안울림소리로 분류되는 자음이다.

08 '습해'의 'ㅅ'과 'ㅂ', 'ㅎ'은 조음 위치가 각각 잇몸, 입술, 목청으로 다르다.

| 오답 풀이 |

① '장마철'의 'ㅈ'과 'ㅊ'은 센입천장소리이다.
② '날씨'의 'ㄴ'은 잇몸소리이자 비음이다.
③ '매우'의 'ㅁ'은 울림소리이자 입술소리이다.
⑤ '땀'에서 'ㅁ'은 잇몸소리와 파열음이고, 'ㅁ'은 입술소리와 비음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서로 다르다.

09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자음은 마찰음 중 'ㅎ'과 울림소리 자음인 'ㄴ, ㅁ, ㅇ, ㄹ'이다.

10 'ㅂ'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이고, 'ㄹ'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

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유음이다.

11 자음 체계표에는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음운의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이 같은 열에 있다는 것을 통해 공통점이 있음을 파악한 후, 두 음운의 차이가 소리의 세기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도록 한다.

| 평가 기준 |

(1)

'ㄷ'과 'ㅌ'의 공통점(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을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3점
'ㄷ'과 'ㅌ'의 공통점(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중 하나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2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1점

(2)

'ㄷ'과 'ㅌ'의 차이점(소리의 세기)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2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1점

개념 09 한글 창제 원리 – ❶ 자음자

본문 90쪽

1 발음 기관 **2** 가획 **3** (1) 상형 (2) 가획 **4** (1) 윗잇몸 (2) 이 (3) 목구멍 **5** (1) ㅍ (2) ㆆ

3 (1) 'ㄱ, ㄴ, ㅁ, ㅅ, ㅇ'은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2) 'ㅋ, ㄷ, ㅂ, ㅈ, ㆆ'은 각각 'ㄱ, ㄴ, ㅁ, ㅅ, ㅇ'에서 획을 한 번 더해 만든 것으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개념 10 한글 창제 원리 – ❷ 모음자

본문 91쪽

1 상형, 합성 **2** ·(아래아) **3** (1) 하늘 (2) 땅 (3) 사람 **4** (1) 상형 (2) 합성 **5** (1) ㅡ (2) ㅠ (3) ㅣ (4) ·(아래아)

4 (1) 'ㆍ, ㅡ, ㅣ'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상형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2) 'ㅏ, ㅑ, ㅗ, ㅛ'는 'ㅣ'와 'ㅡ'에 'ㆍ(아래아)'를 한 번 합하거나 초출자에 'ㆍ(아래아)'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것으로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5 (1) 'ㅡ'의 아래에 'ㆍ(아래아)'가 결합하여 'ㅜ'가 만들어진다.
(2) 'ㅜ'와 'ㆍ(아래아)'가 결합하여 'ㅠ'가 만들어진다.
(3) 'ㅣ'의 오른쪽에 'ㆍ(아래아)'가 결합하여 'ㅏ'가 만들어진다.
(4) 'ㅏ'와 'ㆍ(아래아)'가 결합하여 'ㅑ'가 만들어진다.

STEP ❶ 개념 Drill 09~10

본문 92쪽

1 ○ **2** × **3** × **4** ○ **5** ·(아래아) **6** ㅡ
7 ㅣ **8** × **9** × **10** ○ **11** ○ **12** ㅏ, 합성
13 ㅌ, 가획 **14** ㅍ, 병서 **15** ㅈ, 가획 **16** ㅁ
17 ㅅ **18** ㅇ **19** ㄴ **20** ㄱ

2 모음의 기본자는 동양 철학에서 만물의 구성 요소인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3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세지는 것을 나타낸 글자는 가획자이다.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가획된 글자를 말한다.

8 'ㆁ, ㄹ, ㅿ'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가획된 것이라서 이체자라고 한다.

9 'ㄲ, ㅃ, ㅆ'은 가획의 방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만들었다. 이를 병서라고 한다.

12 'ㅑ'는 재출자로 'ㅏ'와 'ㆍ(아래아)'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이처럼 기본자를 한 번 합하거나 초출자에 'ㆍ(아래아)'를 한 번 더 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든 원리를 합성이라고 한다.

13 'ㄴ'에 획을 더하면 'ㄷ'이 되고 'ㄷ'에 획을 더하면 'ㅌ'이 된다. 이처럼 기본자에 획을 더하며 새로운 글자를 만든 원리를 가획이라고 한다.

14 'ㄷ'에 'ㄷ'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ㅃ'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자음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된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든 원리를 병서라고 한다.

15 'ㅅ'에 획을 더하면 'ㅈ'이 되고 'ㅈ'에 획을 더하면 'ㅊ'이 된다. 이처럼 기본자에 획을 더하며 새로운 글자를 만든 원리를 가획이라고 한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93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④ **05** ② **06** ⑤ **07** ③ **08** ⑤ **09** ③ **10** 예시 답안 모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ㆍ'는 하늘, 'ㅡ'는 땅, 'ㅣ'는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11** 예시 답안 (1) 상형의 원리: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듦. (2) 가획의 원리: 'ㅎ'은 'ㅇ'을 바탕으로 소리가 세짐에 따라 가획을 두 번 하여 만듦. (3) 합성의 원리: 'ㅏ'는 'ㅣ'에 'ㆍ'를 한 번 더하여 만듦., 'ㅛ'는 'ㆍ'와 'ㅡ'가 결합한 'ㅗ'에 'ㆍ'를 한 번 더 더하여 만듦.

01 '훈민정음'은 한글을 만든 목적과 운용 원리를 밝힌 책의 이름인 동시에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체계의 이름으로, 한글은 이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02 'ㄷ'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가획된 것이 맞지만, 'ㄹ'은 소리의 세기와 관계없이 가획된 글자이다.

03 'ㅇ'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04 자음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었지만, 모음은 기본자를 합성하는 합성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05 'ㅗ'는 'ㅡ'에 'ㆍ'를 더해서 만든 초출자이다.

06 (가)는 'ㄱ, ㄴ, ㅁ, ㅅ, ㅇ'에 각각 획을 하나 더해서 만들어진 자음자이고, (나)는 'ㅡ, ㅣ'에 각각 'ㆍ'를 한 번 더하여 만든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기본자에 가획하여 만든 자음자이고, (나)는 기본자를 합성하여 만든 모음자이다.
② (가)의 'ㆆ'(여린히읗)은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자이다.
③ 사물의 형상을 본뜬 것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든 기본자이다.
④ (가)는 가획의 원리, (나)는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이다.

07 ㅿ(반치음), ㆁ(옛이응), ㆆ(여린히읗), ㆍ(아래아)는 한글 창제시에는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글자이다.

08 거센소리는 자음의 기본자에 획을 가하여 만든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가획이라고 한다. 합성은 모음의 창제 원리이다.

09 모음의 초출자는 기본자 'ㅡ'와 'ㅣ'에 'ㆍ'를 한 번 합성하여 만들고, 재출자는 초출자에 'ㆍ'를 한 번 더 합성하여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초출에 사용되는 기본자는 'ㅡ'와 'ㅣ', 'ㆍ' 모두 세 개이다.
② 기본자와 초출자에 합성되는 모음은 모두 'ㆍ'로 같다.
④ 초출과 재출로 만들어진 글자 수는 모두 4개로 같다.
⑤ 모음자의 창제 시 합성하는 모음은 모두 'ㆍ'이다.

10 모음자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었다.

| 평가 기준 |

모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와, 모음 기본자가 각각 무엇을 본떠 만들었는지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모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와 모음의 기본자를 본뜬 대상 중 하나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3점
모음의 기본자를 만든 원리와 모음의 기본자를 본뜬 대상을 모두 정확히 서술하였으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점

11 한글의 창제 원리는 상형, 가획, 합성의 원리이다. 자음과 모음은 모두 상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자음은 가획을 통해, 모음은 합성을 통해 각각 추가적인 자음자와 모음자를 만들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학교'에 반영된 창제 원리를 서술하도록 한다.

| 평가 기준 |

(1), (2), (3)에 해당하는 원리를 모두 정확히 반영한 경우	5점
(1), (2), (3)에 해당하는 원리 중 2개를 정확히 반영한 경우	3점
(1), (2), (3)에 해당하는 원리 중 1개만 정확히 반영한 경우	1점

STEP 3 단원별 내신 실전 문제

본문 96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③ **05** ④ **06** ① **07** 예시 답안 'ㅜ, ㅗ, ㅟ, ㅚ'는 모두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다. **08** ① **09** ⑤ **10** ② **11** ④ **12** ④ **13** 예시 답안 ㉠ ㄴ, ㅁ, ㅇ ㉡ 비음 ㉢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기 **14** ① **15** ④ **16** ⑤ **17** ③ **18** 예시 답안 ㉡은 기본자인 ㉠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창제되었다. **19** ② **20** ⑤ **21** ④

01 '말'과 '밤'은 초성과 종성이 각각 'ㅁ, ㅂ', 'ㄹ, ㅁ'으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하나의 음운에 의해 말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⑤는 종성 'ㅁ, ㅂ', ②, ④는 초성 'ㅁ, ㅂ'에 의해 말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다.

02 ㉠의 음운을 분석하면 'ㅡ, ㄴ, ㅎ, ㅏ'이다. 이 중 자음은 'ㄴ, ㅎ'이다. '은'의 초성 자리에 쓰인 'ㅇ'은 소릿값이 없으므로 자음이 아니다.

03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인 '눈'은 '[눈]'으로 짧게 발음하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인 '눈'은 [눈:]으로 길게 발음한다. 따라서 둘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구별된다.

04 ㉠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고, ㉡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다.

| 오답 풀이 |

①은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을, ②는 고모음과 저모음을, ④는 자음과 모음을, ⑤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05 전설 모음에는 'ㅣ, ㅔ, ㅐ, ㅟ, ㅚ'가 있고, 후설 모음에는 'ㅡ, ㅓ, ㅏ, ㅜ, ㅗ'가 있다. '키위'에는 전설 모음 'ㅣ, ㅟ'가, '우동'에는 후설 모음 'ㅜ, ㅗ'가 쓰였다.

06 '그어라'에 쓰인 단모음 'ㅡ, ㅓ, ㅏ'는 혀의 위치(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각각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높고 입이 조금 벌어졌다가 혀의 위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도 점점 크게 벌어진다.

| 오답 풀이 |

④, ⑤ 'ㅡ, ㅓ, ㅏ'는 모두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평평한 상태로 발음한다.

07 〈보기〉에 쓰인 모음 'ㅜ, ㅗ, ㅟ, ㅚ'는 모두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할 때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원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한다.

| 평가 기준 |

원순 모음 4개를 정확히 쓰고, 원순 모음을 발음할 때의 공통점을 서술하면서, '원순 모음'이라는 명칭을 적절히 사용한 경우	5점
원순 모음을 발음할 때의 공통점을 적절히 서술하거나 '원순 모음'이라는 명칭만 쓴 경우	3점
원순 모음 4개만 정확히 쓴 경우	1점

08 'ㅖ'는 중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고, 'ㅒ'는 저모음,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따라서 'ㅖ'와 'ㅒ'는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중모음과 저모음이라는 차이만 있다. 그러므로 중모음 'ㅖ'를 발음할 때는 저모음 'ㅒ'를 발음할 때보다 혀를 조금 높여 발음해야 한다.

09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은 단모음이다. 단모음 중 혀가 가장 높이 위치하는 고모음은 'ㅣ, ㅟ, ㅡ, ㅜ'이다. 그중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은 'ㅣ, ㅟ'이다. 그중 입술 모양이 평평한 평순 모음은 'ㅣ'이다. 'ㅣ'가 쓰인 단어는 '이글이글'이다.

10 ❷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잇몸소리로, 'ㄷ, ㄸ, ㅌ, ㅅ, ㅆ, ㄴ, ㄹ'이 있다.

| 오답 풀이 |

① ❶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입술소리로 'ㅂ, ㅃ, ㅍ, ㅁ'이 있다.
③ ❸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센입천장소리로 'ㅈ, ㅉ, ㅊ'이 있다.
④ ❹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혀의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여린입천장소리로 'ㄱ, ㄲ, ㅋ, ㅇ'이 있다.
⑤ ❺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목청에서 소리 나는 목청소리로 'ㅎ'이 있다.

11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ㄲ, ㅋ, ㅇ'이고, 그중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는 파열음은 'ㄱ, ㄲ, ㅋ'이다. 그중 공기를 세게 내뿜어 소리가 거세게 나오는 거센소리는 'ㅋ'이다. 'ㅋ'이 사용된 단어는 '코피'이다.

12 '박박'에 쓰인 'ㅂ'은 예사소리로, 'ㅂ'을 발음할 때는 성대 근육을 거의 긴장시키지 않고 편하게 소리를 낸다.

| 오답 풀이 |

① 'ㅂ, ㅃ, ㅍ'은 모두 입술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② '빡빡'에는 된소리 'ㅃ'이, '박박'에는 예사소리 'ㅂ'이 쓰였으므로 '빡빡'이 '박박'에 비해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준다.
③ '팍팍'에 쓰인 'ㅍ'은 거센소리이므로 발음할 때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온다.
⑤ 'ㅂ, ㅃ, ㅍ'은 모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인 파열음이다.

13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는 자음이다. 따라서 코가 막혔을 때는 코로 공기를 내보낼 수 없어서 제대로 발음하기가 어렵다. 비음에 해당하는 자

음은 'ㄴ, ㅁ, ㅇ'이다.

| 평가 기준 |

㉠, ㉡, ㉢을 모두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 ㉡, ㉢ 중 두 개만 적절히 서술한 경우	3점
㉠, ㉡, ㉢ 중 한 개만 적절히 서술한 경우	1점

14 '소탐대실'에 쓰인 자음은 'ㅅ, ㅌ, ㅁ, ㄷ, ㄹ'이다. 이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ㅅ, ㅌ, ㄷ, ㄹ'은 잇몸소리이고 'ㅁ'은 입술소리이다.

| 오답 풀이 |

② '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때 거친 느낌을 주는 거센소리이다.

③ '소탐대실'에 쓰인 모음은 'ㅗ, ㅏ, ㅐ, ㅣ'로, 모두 단모음에 해당한다.

④ 'ㅗ, ㅏ, ㅐ, ㅣ' 중 'ㅣ'는 고모음, 'ㅗ'는 중모음, 'ㅏ, ㅐ'는 저모음이다.

⑤ 자음 중 안울림소리는 'ㅅ, ㅌ, ㄷ, ㅅ' 4개이고, 울림소리는 'ㅁ, ㄹ' 2개이다.

15 'ㅟ'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오는 전설 모음인 것은 맞지만,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고모음이므로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발음해야 한다.

16 ㉠에는 'ㄴ', ㉡에는 'ㄹ, ㅁ', ㉢에는 'ㅇ'이 쓰였으므로 ㉠, ㉡, ㉢ 모두에 울림소리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에 울림소리가 쓰이지 않았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에는 'ㅕ', ㉡에는 'ㅑ', ㉢에는 'ㅘ'가 쓰였으므로 ㉠, ㉡, ㉢ 모두에 이중 모음이 사용되었다.

② ㉠에는 'ㄴ, ㄷ', ㉡에는 'ㄷ, ㄹ', ㉢에는 'ㅌ'이 쓰였으므로 ㉠, ㉡, ㉢ 모두에 잇몸소리가 사용되었다.

③ ㉠에는 'ㅂ', ㉡에는 'ㅁ'이 쓰였으므로 입술소리가 사용되었지만, ㉢에 쓰인 자음은 목청소리 'ㅎ', 여린입천장소리 'ㅇ, ㄱ', 잇몸소리 'ㅌ'이 쓰이고 있다.

④ ㉠과 ㉢에는 모두 'ㅜ'라는 원순 모음이 사용되었지만, ㉡에 쓰인 단모음 'ㅏ, ㅣ'는 모두 평순 모음이다.

17 자음 기본자와 모음 기본자는 모두 대상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창제되었다.

18 ㉠은 기본자이고, ㉡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창제된 가획자이다.

| 평가 기준 |

㉠을 바탕으로 ㉡의 창제 원리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의 창제 원리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의 창제 원리의 명칭만 쓴 경우	1점

19 ㉠은 기본자 'ㅡ, ㅣ'에 'ㆍ'를 합하여 합성의 원리로 만든 초출자이고, ㉡은 초출자에 'ㆍ'를 한 번 더 합하는 합성의 원리로 만든 재출자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합성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오답 풀이 |

① ㉠은 초출자이고, ㉡은 재출자이다.

③ ㉠과 ㉡은 모두 오늘날에 쓰이는 모음자이다.

④ ㉠은 단모음을, ㉡은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⑤ ㉠은 'ㅡ, ㅣ'에 획을 더한 것이 아니라, 'ㆍ'를 합하여 만든 것이고, ㉡은 ㉠에 'ㆍ'를 한 번 더 합하여 만든 것이다.

20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는 거센소리 'ㅋ, ㅌ, ㅍ, ㅊ' 등을 말한다. 이 글자들은 서로 다른 자음자를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는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 오답 풀이 |

① 자음자 중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가획자의 경우, 'ㄱ, ㅋ'와 같이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더 세짐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였다.

② 'ㄱ, ㅋ', 'ㄴ, ㄷ, ㅌ', 'ㅁ, ㅂ, ㅍ' 등과 같이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자음자는 글자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었다.

③ 자음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은 각각 발음할 때 소리 나는 위치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④ 자음자 중 병서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의 경우,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붙여 써서 소리가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느낌을 주는 된소리를 나타내었다.

21 'ㆍ'(아래아)는 오늘날에는 사라져 쓰이지 않는 모음자이다(ㄱ). 자음자 중에 'ㅅ'은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이고, 'ㅁ'은 입 모양을 본뜬 기본자이다(ㄴ). 자음자 중에 'ㄹ'은 획을 더하였지만 소리가 세지지 않는 예외 글자인 이체자에 해당한다(ㄹ).

| 오답 풀이 |

ㄷ. '사**돔**'에 쓰인 모음자 'ㅗ'는 기본자 'ㅣ'에 'ㆍ'를 합하여 만든 초출자이고, 'ㆍ'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3 문장

개념 01 문장과 문장 성분

본문 102쪽

1 문장 **2** 문장 성분 **3** 부속 성분, 독립 성분 **4** (1) ㉢ (2) ㉠, ㉡ (3) ㉣, ㉤

3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이고,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주는 관형어,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다. 또 주성분이나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어는 '독립 성분'이다.

4 (1)의 '어찌하다'는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고 (2)의 '어떠하다'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며 (3)의 '무엇이다'는 주어를 지정한다.
㉠ 물이(누가/무엇이) + 깨끗하다(어떠하다).
㉡ 바람이(누가/무엇이) + 시원하다(어떠하다).
㉢ 나비가(누가/무엇이) + 날아다닌다(어찌하다).
㉣ 동생은(누가/무엇이) + 초등학생이다(무엇이다).
㉤ 내일은(누가/무엇이) + 개교기념일이다(무엇이다).

개념 02 주어

본문 103쪽

1 주어 **2** 맨 앞 **3** (1) 깃발이 (2) 민수 (3) 나만 (4) 선생님께서 **4** (1) ○ (2) × (3) ○ (4) × (5) × **5** 너(는), 나(는)

3 주어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으로,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주어는 대개 체언에 조사가 붙은 형태로, 주어를 만드는 조사에는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와 보조사 '은/는', '도', '만' 등이 있다. (1)은 체언 '깃발' + 주격 조사 '이', (2)는 체언 '민수' + 조사가 생략된 경우, (3)은 체언 '나' + 보조사 '만', (4)는 체언 '선생님' + 주격 조사 '께서'가 붙은 형태의 주어이다.

4 밑줄 친 부분에서 (1)과 (3)만 주어에 해당한다. (1)의 주어 '새가'는 체언 '새'에 주격 조사 '가'가 붙은 형태이고, (3)의 주어 '나도'는 체언 '나'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이다. (2)에서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고, (4)에서는 '그는'이, (5)에서는 '제가'가 주어이다. (2)의 '밥을'은 목적어, (4)의 '의사가'는 보어, (5)의 '어머니'는 독립어로 쓰였다.

5 주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문맥상 주어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생략하기도 한다. 수아는 민준이에게 질문하고 있으므로 듣는 이를 가리키는 주어 '너(는)'가 생략되었고, 민준이는 수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가리키는 주어 '나(는)'가 생략되었다.

개념 03 서술어

본문 104쪽

1 서술어 **2** (1) 누웠다, ㉠ (2) 장미이다, ㉢ (3) 맑다, ㉡ **3** (1) 날아간다, 한 (2) 먹는다, 두 (3) 아니다, 두 (4) 닮았다, 두 (5) 주었다, 세 (6) 여긴다, 세 (7) 놓으셨다, 세

2 (1)에서 서술어 '누웠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2)에서 서술어 '장미이다'는 '무엇이다'에 해당하고,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3)에서 서술어 '맑다'는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형용사이다.

3 (1)에서 서술어 '날아간다'는 주어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이다.
(2)에서 서술어 '먹는다'는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3)에서 서술어 '아니다'는 주어,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4)에서 서술어 '닮았다'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5)에서 서술어 '주었다'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6)에서 서술어 '여긴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7)에서 서술어 '놓으셨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STEP 1 개념 Drill 01~03

본문 105쪽

1 ○ **2** × **3** × **4** ○ **5** ○ **6** 강아지가 **7** 국회에서 **8** 그는 **9** ○ **10** × **11** ○ **12** × **13** 웃는다, 동사 **14** 높다, 형용사 **15** 우산이다, 체언 + 서술격 조사 **16** 맛있다, 형용사 **17** 한 **18** 한 **19** 두 **20** 두 **21** 세 **22** 세

2 주어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주어를 만드는 조사에는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와 보조사 '은/는', '도', '만' 등이 있다.

3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이다.

7 주어 '국회에서'는 '정부, 학교, 반' 등과 같이 단체나 조직을 나타내는 명사 '국회'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은 형태이다.

10 주어는 '그것은'이고 '장난감이'는 보어에 해당한다.

12 주어는 '나는'이고 '진경이를'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을 가리키는 목적어에 해당한다.

15 '저것은 내 우산이다.'는 '무엇이 + 무엇이다'라는 문장 구조에 해당하고, 서술어 '우산이다'는 체언 '우산'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19 서술어 '먹었다'는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20 서술어 '되었다'는 주어, 보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이다.

21 서술어 '주었다'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22 서술어 '데려다주었다'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06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③ **07** ⑤ **08** ④ **09** ⑤ **10** (1) • 주어: 하늘이, • 서술어: 높다 (2) 예시 답안 '하늘이'는 '무엇이'에 해당하고 '높다'는 하늘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에 해당하므로 '무엇이 + 어떠하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1** (1) ㉠ 주어, ㉡ 주어, 필수적 부사어, 목적어 (2) ㉠ 한, ㉡ 세 (3) 예시 답안 ㉠의 서술어 '피었다'는 주어 '꽃이'만 필요하지만, ㉡의 서술어 '주었다'는 주어 '나는', 필수적 부사어 '친구에게', 목적어 '선물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 서술어의 자릿수도 다르다.

01 〈보기〉의 문장에서 주어는 '민재가'이고 서술어는 '모범생이다'이다. 민재를 모범생이라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의 기본 구조는 '누가 + 무엇이다'이다.

02 독립 성분은 주성분이나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이에 해당한다.

03 첫 번째 문장 '물건이 많다.'에서 ㉠'물건이'는 주어, ㉡'많다'는 서술어이다. 두 번째 문장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에서 ㉠'나는'은 주어, ㉡'읽었다'는 서술어이다. 주어인 ㉠은 문맥에 따라 생략할 수 있지만, 서술어인 ㉡은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은 주어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상태나 동작의 주체가 된다.
② ㉡은 서술어로, 주어의 상태나 성질, 동작이나 작용을 풀이한다. 문장에서 '어떠하다, 어찌하다'로 나타난다.
③ ㉠은 주어, ㉡은 서술어이므로 모두 주성분에 해당한다.
④ 주어와 서술어는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다.

04 ④에서 주어는 '너는'이고 서술어는 '불렀니'이다. 밑줄 친 '찬우야'는 체언 '찬우'에 호격 조사 '야'가 붙은 형태의 독립어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체언 '하늘'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의 주어로, '하늘이'는 '맑다'의 주체이다.
② 체언 '선생님'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은 형태의 주어로, '선생님께서'는 '오셨다'의 주체이다.
③ 체언 '학교'에 단체나 조직에 붙는 주격 조사 '에서'가 붙은 형태의 주어로, '학교에서'는 '주최했다'의 주체이다.
⑤ 체언 '나'에 보조사 '는'이 붙은 형태의 주어로, '나는'은 '좋아한다'의 주체이다.

05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 성분은 주어이다. ②에서 주어는 '물이'이고 서술어는 '되었다'이다. 밑줄 친 '얼음이'는 서술어 '되었다' 앞에 쓰여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는 문장 성분으로 '보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꽃이'는 체언 '꽃'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이다. '피었다'라는 동작의 주체가 '꽃'이므로 '꽃이'는 주어이다.
③ '영미가'는 체언 '영미'에 주격 조사 '가'가 붙은 형태이다. '먹는다'라는 동작의 주체가 '영미'이므로 '영미가'는 주어이다.
④ '나도'는 체언 '나'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이다. '보았다'라는 동작의 주체가 '나'이므로 '나도'는 주어이다. 주어에는 주격

조사 외에 보조사도 붙을 수 있다.
⑤ '어머니께서'는 체언 '어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은 형태이다. '만드신다'라는 동작의 주체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께서'는 주어이다.

06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르면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도 다르다. 서술어가 주어 하나만을 요구하면 한 자리 서술어이고,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보어를 요구하면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③에서와 같이 한 자리 서술어는 목적어와 보어를 모두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07 〈보기〉에서 설명하는 서술어는 '주어 + 목적어 + 필수적 부사어 + 서술어' 형태의 세 자리 서술어이다. 이와 같은 세 자리 서술어가 쓰인 문장은 ⑤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어 + 서술어' 형태의 한 자리 서술어가 쓰였다.
② '주어 + 서술어' 형태의 한 자리 서술어가 쓰였다.
③ '주어 + 보어 + 서술어' 형태의 두 자리 서술어가 쓰였다.
④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형태의 두 자리 서술어가 쓰였다. '공원에서'는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08 '뜨겁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샀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제시된 문장에서도 '뜨겁다'는 목적어 없이 쓰였고 '샀다'는 '과일을'이라는 목적어와 함께 쓰였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이다'는 체언 '학생'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의 서술어로, 주어를 학생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뜨겁다'는 형용사로,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③ '샀다'는 동사로, 주어의 동작을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⑤ '학생이다', '뜨겁다', '샀다'는 모두 서술어에 해당한다.

09 〈보기〉의 문장에서 서술어 '개발했다'의 주체가 되는 주어는 '박사님은'이다.

| 오답 풀이 |
① '박사님은'은 체언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이다.
② 서술어는 '개발했다'이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③ 서술어 '개발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백신을'의 문장 성분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10 〈보기〉의 문장에서 주어는 '하늘이'이고 서술어는 '높다'이다. '높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므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형용사이다.

| 평가 기준 |

(1)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바르게 찾아 쓴 경우	2점
주어와 서술어 중 한 개만 바르게 찾아 쓴 경우	1점

(2)

문장의 기본 구조를 '무엇이(하늘이) + 어떠하다(높다)'로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문장의 기본 구조에서 '무엇이(하늘이)' 또는 '어떠하다(높다)' 중 한 부분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11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르다.

| 평가 기준 |

(1)

㉠과 ㉡의 문장 성분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점
㉠과 ㉡의 문장 성분 중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2)

㉠과 ㉡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점
㉠과 ㉡의 서술어의 자릿수 중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3)

㉠과 ㉡에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이유를 〈조건〉에 맞게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과 ㉡에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이유를 ㉠과 ㉡ 중 한 개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개념 04 목적어

본문 108쪽

1 목적어 **2** 체언 **3** (1) × (2) × (3) ○ **4** (1) 그네를 (2) 가요도 **5** (1) ○ (2) ○ (3) × (4) ○

3 (1) 목적어에는 목적격 조사 '을/를' 이외에도 보조사 '은/는', '도', '만' 등이 붙을 수 있다.
(2)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먹다, 타다, 보다' 등의 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나타나지만, '피다, 솟다, 날다' 등의 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4 목적어는 문장에서 '누구를/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다.
(1)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그네를'이다. 체언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형태이다.
(2)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가요도'이다. 체언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이다.

5 (1) '나를'은 '누구를'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형태의 목적어이다.
(2) '아침밥은'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에 보조사 '은'이 붙은 형태의 목적어이다.
(3) '학교에'는 '누구를/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므로 목적어가 아니다. '학교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4) '김치'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로, 조사가 생략되어 체언만으로 이루어진 목적어이다.

개념 05 보어

본문 109쪽

1 불완전한, 보충 **2** 보어 **3** (1) 개구리가 (2) 사실이 (3) 소설가 **4** (1) ○ (2) × (3) ○ (4) × **5** 해진이는 → 주어, 거짓말쟁이가 → 보어

4 (2) 밑줄 친 '아들도'가 주어이고, 보어는 '노인이'이다.
(4) 밑줄 친 '고래는'이 주어이고, 보어는 '물고기가'이다.

5 제시된 문장에서 '해진이는'이 주어이고, 서술어 '아니다' 앞에 쓰인 '거짓말쟁이가'는 보어이다.

개념 06 주성분 –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본문 110쪽

1 주성분 **2**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3** (1) 주어 → 할머니께서, 목적어 → 바느질을, 서술어 → 하신다 (2) 주어 → 그는, 보어 → 배우가, 서술어 → 되었다

2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해당한다.

3 (1)에서 '할머니께서'는 주어, '바느질을'은 목적어, '하신다'는 서술어로,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성분이다. 다만 '조용히'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로 부사어이다.
(2)에서 '그는'은 주어, '배우가'는 보어, '되었다'는 서술어로,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성분이다. 다만 '마침내'는 '언제'에 해당하는 말로 부사어이고, '유명한'은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관형어이다.

STEP 1 개념 Drill 04~06

본문 111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1) ○ **14** (2) ○ **15** 장난감을 **16** 라면을 **17** 그림을 **18** 혼자가 **19** 대학생이 **20** 의사 **21** 주어 **22** 목적어 **23** 보어 **24** 목적어, 서술어 **25** 주어, 보어

2 목적어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결합한 형태 외에 보조사 '은/는', '도', '만' 등이 결합한 형태도 나타난다.

6 목적어와 보어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어와 서술어는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이다.

9 목적어는 '고개만'이고 밑줄 친 '천천히'는 부사어이다.

10 목적어 '아이스크림도'는 체언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형태이다. 목적어 '아이스크림도'에서 보조사 '도'를 목적격 조사 '을'로 바꾸었을 때 문장이 성립하므로 목적어임을 알 수 있다.

11 '주었다'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와 같은 문장 형태로 쓰이며, 이 문장에서 '나에게'는 선물을 받는 대상, 즉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이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선물을'이다.

12 '왕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공주만을'이 목적어이다. 이때 '만'은 보조사이고 '을'은 목적격 조사이지만, 보조사가 붙었다고 해서 목적어가 아닌 것은 아니다. '공주만을'은 '공주를'에 보조사 '만'이 붙은 형태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13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보어이므로 '(1) 물이 얼음이 되었다.'에서 보어는 '얼음이'이고 '(2) 얼음이 물이 되었다.'에서 보어는 '물이'이다.

14 '(1) 성진이가 반장이 아니다.'에서 보어는 '반장이'이고 '(2) 반장이 성진이가 아니다.'에서 보어는 '성진이가'이다.

15 주어진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장난감을'이다. '커다란'은 '장난감'을 꾸며 뜻을 더해 주는 문장 성분(관형어)이다.

16 주어진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라면을'이

다. '부엌에서'는 행위가 일어난 장소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부사어)에 해당한다.

17 주어진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그림을'이다. '색연필로'는 도구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부사어)이다.

18 서술어 '아니다' 앞에서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보어이므로 주어진 문장에서 보어는 '혼자가'이다.

20 주어진 문장에서는 '되다니' 앞에 놓인 '의사'가 보어이다. 다만 체언 '의사'만 나타나고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21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 주어이므로 '무엇이'에 해당하는 '달빛이'는 주어이다.

23 서술어 '아니다' 앞에 쓰여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는 성분이 보어이므로 '책가방이'는 보어이다.

24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이므로 '누구를'에 해당하는 '반장을'은 목적어이다.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이므로 '찾으신다'는 서술어이다.

25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 주어이므로 '누가'에 해당하는 '아이가'는 주어이다. 서술어 '되다' 앞에 쓰여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는 성분이 보어이므로 '중학생이'는 보어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12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④ **09** ⑤ **10** (1) ㉠ 주어, ㉡ 보어 (2) 예시 답안 ㉠은 체언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이다. ㉡은 체언에 보격 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 '되었다' 앞에 쓰여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는 문장 성분이다. **11** (1) 반장이, 보어 (2) 예시 답안 이 문장에서 '반장이'를 빼면 '믿음직한 승수가 되었다.'로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장이'는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다. 또한 서술어 '되었다' 앞에 쓰여 그 의미를 보충하므로 보어이다.

01 서술어에 따라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④에서 서술어 '날아간다'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이다. 따라서 목적어가 쓰이지 않았다. '하늘로'는 용언을 꾸며 뜻을 더해 주는 부사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목적어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떡도'에서 '도'는 보조사이지만, 서술어 '먹는다'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② '축구공을'에서 '을'은 목적격 조사이며, 서술어 '찬다'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③ '그림만'에서 '만'은 보조사이지만, 서술어 '그린다'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⑤ '자녀를'에서 '를'은 목적격 조사이며, 서술어 '사랑하신다'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02 〈보기〉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어는 문장에서 '누구를/무엇을'에 해당하는 말로 주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기도 하고 보조사 '은/는', '도', '만' 등이 붙기도 한다. ⑤에서 밑줄 친 '시합에서'는 목적어가 아니라 필수적 부사어이다.

03 〈보기〉의 문장에서 '동생은'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이다. 체언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의 주체가 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동생은'은 주어, '산을'은 목적어, '좋아한다'는 서술어로, 모두 주성분이다.
③ '좋아한다'는 '무엇을 좋아한다.'와 같이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이다.
④, ⑤ 목적어는 주로 '누구를/무엇을'에 해당한다. 목적어는 서술어 '좋아한다'가 나타내는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므로 이 문장에서는 '산을'이 이에 해당한다.

04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는 문장 성분이다. ④에서 '되었다' 앞에 쓰인 '가수가'가 보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에서 밑줄 친 '하늘이'와 ②에서 밑줄 친 '서준이가'는 주어에 해당한다.
③에서 밑줄 친 '책을'과 ⑤에서 밑줄 친 '준혁이를'은 목적어에 해당한다.

05 〈보기〉는 보어에 대한 설명으로, ⑤에서 '되었다' 앞에 쓰인 '기술자가'가 보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바람이 차갑다.'와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보어가 쓰이지 않았다.

③ '우리 누나는 대학생이다.'는 '관형어 +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보어가 쓰이지 않았다.

④ '용민이가 떡볶이를 먹는다.'는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보어가 쓰이지 않았다.

06 〈보기〉에 제시된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다.'라는 문장은 '주어 + 보어 + 서술어'로 이루어졌다. ③에서 '쓰레기가'는 서술어 '아니다' 앞에 쓰인, 체언에 보격 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의 보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보기〉에 제시된 문장에서 '그것은'은 주어이다. '그것'이라는 체언에 보조사 '은'이 붙어 문장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④ '쓰레기가'는 서술어 '아니다' 앞에 쓰여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⑤ '아니다'는 주어 '그것은'이 쓰레기가 아님을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07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한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해당한다. 목적어는 문장에서 '누구를/무엇을'에 해당하는 말로, 주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기도 하고 보조사 '은/는', '도', '만' 등이 붙기도 한다. 따라서 ㉢의 목적어에는 반드시 조사 '을/를'이 붙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08 주성분은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해당한다.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 '바닥에'이다. '바닥에'는 일이 일어난 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이다.

| 오답 풀이 |

㉠ 밑줄 친 '형은'은 체언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로 주어에 해당한다.

㉡ 밑줄 친 '사과를'은 체언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한 형태로 목적어에 해당한다.

㉢ 밑줄 친 '운동화이다'는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로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 밑줄 친 '변호사가'는 서술어 '되었다' 앞에 쓰여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에 해당한다.

09 각 문장에 쓰인 주성분, 즉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개수를 세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는 '주어 + 보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므로 주성분의 개수는 세 개이다. 따라서 ⑤의 문장에서 사용된 주성분의 개수가 가장 많다.

| 오답 풀이 |

① '창문을 닫았니?'는 '목적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므로 주성분의 개수는 두 개이다.

② '그녀가 범인이다.'는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므로 주성분의 개수는 두 개이다.

③ '우체국이 근처에 있다.'는 '주어 + 부사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므로 주성분의 개수는 두 개이다.

④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는 '주어 + 부사어 + 부사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므로 주성분의 개수는 두 개이다.

10 〈보기〉의 문장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다.'에서 ㉠은 체언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로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이다. ㉡은 체언에 보격 조사 '가'가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 '되었다' 앞에 쓰여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 평가 기준 |

(1)

㉠과 ㉡의 문장 성분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점
㉠과 ㉡의 문장 성분 중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2)

㉠과 ㉡의 문장 성분의 근거를 〈조건〉에 맞게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과 ㉡의 문장 성분의 근거를 〈조건〉에 맞게 썼으나 한 개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과 ㉡의 문장 성분의 근거를 모두 썼으나 〈조건〉 두 개 중 한 개만 근거로 들어서 바르게 서술한 경우	

11 〈보기〉의 문장 '믿음직한 승수가 반장이 되었다.'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즉 보어는 '반장이'이다.

| 평가 기준 |

(1)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문장 성분의 종류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점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문장 성분의 종류 중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2)

(1)과 같이 답한 근거를 〈조건〉에 맞게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1)과 같이 답한 근거를 〈조건〉에 맞게 썼으나 한 개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개념 07 관형어

본문 115쪽

1 관형어 **2** 체언 **3** (1) × (2) ○ **4** (1) 나의 (2) 세 (3) 빨간 (4) 헌 (5) 다른, 그 (6) 남은, 먹을

3 (1)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는 대부분 생략해도 문장이 이루어진다.
(2) 관형어는 체언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꾸며 준다.

4 (1) '누구의'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소원'을 꾸며 주는 관형어는 '나의'이다.
(3)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우산'을 꾸며 주는 관형어는 '빨간'이다.
(2), (4)~(5) (2) '세', (4) '헌', (5) '다른', '그'는 모두 관형사가 그 자체로 관형어가 된 형태로 '새, 헌, 옛, 순, 온갖, 이, 그, 저, 다른, 한, 두, 세, 여러' 등이 있다.
(6)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피자'를 꾸며 주는 관형어는 '남은'이고,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어는 '먹을'이다.

개념 08 부사어

본문 116쪽

1 용언 **2** 부사어 **3** (1) 신나게 (2) 설마 **4** (1) ○ (2) ○ (3) × **5** 매우, 기쁘게

1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문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누구에게', '어디에'에 해당하는 말이다.

3 (1)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사어는 '신나게'이다.
(2) '설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4 (1) 밑줄 친 '천천히'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 '걸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2) 밑줄 친 '부산에'는 '어디에'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 '계신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3) 밑줄 친 '맛있는'은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과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냉장고에'가 '어디에'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 '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5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을 꾸며 주는 것은 '기쁘게'이고, '매우'는 '얼마나'에 해당하는 말로 다른 부사어 '기쁘게'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개념 09 부속 성분 – 관형어, 부사어

본문 117쪽

1 주성분, 부속 성분 **2** 관형어, 부사어 **3** 이루어진다 **4** (1) 아주, 빨리 → 부사어, 부사어 (2) 밝은, 환하게 → 관형어, 부사어 (3) 낡은, 멋지게 → 관형어, 부사어 (4) 아마, 저, 우리 → 부사어, 관형어, 관형어

3 필수적 부사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속 성분(관형어, 부사어)은 생략해도 문장이 이루어진다. '파란 하늘이 매우 높다.'에서 관형어 '파란'과 부사어 '매우'는 생략할 수 있다.

4 (1) '아주'와 '빨리'는 각각 '얼마나'와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로 부사어이다. '빨리'는 용언 '달린다'를 꾸며 주고, '아주'는 다른 부사어 '빨리'를 꾸며 준다.
(2) '밝은'은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달'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환하게'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 '밝힌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3) '낡은'은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모자'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멋지게'는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 '썼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4) '아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저'와 '우리'는 각각 '어떤'과 '누구의'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건물'과 '학교'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개념 10 독립어, 독립 성분

본문 118쪽

1 독립어 **2** 독립어 **3** (1) ○ (2) × **4** (1) ○ (2) × **5** (1) 지수야 → 부름 (2) 아 → 감탄

3 (1) 독립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2) 독립어는 대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지만, 놓이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4 (1) 밑줄 친 '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타내는 말로 독립어이다.
(2) 밑줄 친 '드디어'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5 (1) '지수야'는 체언 '지수'에 호격 조사 '야'가 붙은 형태로 부름을 나타내는 독립어이다.
(2) '아'는 감탄사가 그 자체로 독립어가 된 형태이다.

STEP 1 개념 Drill 07~10

본문 119쪽

1 ○ 2 ○ 3 ○ 4 × 5 × 6 × 7 부사어
8 관형어 9 관형어, 부사어 10 ○ 11 ○ 12 ×
13 ○ 14 ○ 15 부사어 16 독립어 17 부사어
18 관형어 19 관형어 20 아차 21 청춘 22 독립어, 관형어 23 관형어, 부사어 24 부사어, 부사어

4 용언(동사, 형용사)이 아니라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에게', '과/와'가 붙으면 부사어가 된다.

5 독립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생략해도 문장이 이루어진다.

6 관형어와 부사어는 주로 주성분(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해 주는 부속 성분이다.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주로 부름, 대답, 감탄, 놀람 등을 나타내는 독립어는 독립 성분이다.

7 밑줄 친 '부디'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11 밑줄 친 '선생님'은 '부름'을 나타내는 독립어로 호격 조사 '아/야'가 생략된 형태이다.

12 밑줄 친 '제발'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13 밑줄 친 '행복'은 제시어가 그대로 독립어가 된 형태이다.

14 밑줄 친 '그래'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람을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로 독립어이다.

15 밑줄 친 '우체통에'는 '어디에'에 해당하는 말로, 서술어 '넣어라'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17 부사어는 문장 안에서 관형어를 꾸며 주기도 한다.

18 밑줄 친 '할머니'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로 체언 '고향'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20 독립어는 '아차'이다. 독립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쉼표(,)를 찍어서 나머지 성분과 구분한다.

23 밑줄 친 '제자로'는 필수적 부사어로, 이 문장에서 '제자로'를 생략하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20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② **10** ④ **11** (1) ㉠ 관형어, ㉡ 부사어 (2) 예시 답안 ㉠은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민들레꽃'을 꾸며 주고, ㉡은 '어떻게'에 해당하는 말로 서술어 '피었다'를 꾸며 준다. **12** (1) ㉢, ㉤, ㉥ (2) 예시 답안 ㉢은 주어, ㉤은 보어, ㉥은 서술어로 모두 주성분에 해당한다.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성분인 ㉢, ㉤, ㉥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은 관형어, ㉣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에 해당하고,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인 ㉡, ㉣이나 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인 ㉠을 생략하더라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

01 관형어는 관형사만으로 이루어지거나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만들어진다. 또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만들어진다. ④에서 '무척'은 다른 부사어 '빨리'를 꾸며 뜻을 더해 주는 부사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옛'은 관형사 자체로 이루어진 말로, 뒤에 오는 체언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② '예쁜'은 용언의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형태로, 뒤에 오는 체언 '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③ '나의'는 체언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형태로, 뒤에 오는 체언 '꿈'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⑤ '모든'은 관형사 자체로 이루어진 말로,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02 ①의 '저', ②의 '새', ③의 '이', ④의 '친구의', ⑤의 '여러'가 관형어로 쓰였다. ①~③, ⑤는 모두 관형사가 그 자체로 관형어가 된 형태이다. ④의 '친구의'만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03 ㉣의 '갈'은 '가다'의 어간 '가-'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한 형태로, 뒤에 오는 체언 '예정'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이때 '-ㄹ'은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친구의'는 체언 '친구'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며 준다. 따라서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② ㉡의 '헌'은 뒤에 오는 체언 '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이

처럼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관형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관형어의 쓰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③ ㉢의 '흰'은 뒤에 오는 체언 '운동화'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따라서 관형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⑤ ㉤의 '어머니'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 뒤에 오는 체언 '사진'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이처럼 관형어가 조사 없이 체언을 꾸며 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04 ①~④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였고, ⑤의 '아주'만 '빨리'라는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였다.

| 오답 풀이 |

① 밑줄 친 부사어 '활짝'은 용언 '피었다'를 꾸며 준다.
② 밑줄 친 부사어 '정말'은 용언 '귀엽다'를 꾸며 준다.
③ 밑줄 친 부사어 '무척'은 용언 '조용하다'를 꾸며 준다.
④ 밑줄 친 부사어 '매우'는 용언 '기쁘다'를 꾸며 준다.

05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①~③, ⑤에서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 주고, ④의 부사어 '제발'만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따라서 〈보기〉의 밑줄 친 '과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사어는 '제발'이다.

| 오답 풀이 |

① 부사어 '매우'는 용언 '환하다'를 꾸며 준다.
② 부사어 '거세게'는 용언 '밀려온다'를 꾸며 준다.
③ 부사어 '무척이나'는 용언 '깨끗하다'를 꾸며 준다.
⑤ 부사어 '힘차게'는 용언 '달린다'를 꾸며 준다.

0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필수적 부사어에 대한 설명이다. 필수적 부사어는 일부 서술어(주다, 삼다, 여기다, 만들다, 닮다, 보내다, 건네다, 넣다, 다르다, 맡기다, 바치다 등)의 성질에 따라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사어로, 이를 생략하면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⑤에서 '뜨겁게'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해도 문장이 이루어지므로 서술어 '느꼈다'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필수적 부사어는 '실물과'이다.
② 필수적 부사어는 '아버지와'이다.
③ 필수적 부사어는 '아들로'이다.
④ 필수적 부사어는 '배추흰나비로'이다.

07 주어진 문장에서 관형어는 '나비'를 꾸며 주는 '예쁜'이다. 부사어는 '조용히'와 '꽃잎에서'이다. '조용히'는 용언 '날아오른다'를 꾸며 주고 '꽃잎에서'는 '날아오른다'와 관련하여 나비가 어디에서 날아오르는지, 즉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 따라서 부속 성분은 모두 세 개이다.

08 독립어는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주로 부름, 대답, 감탄, 놀람 등을 나타낸다. ④의 밑줄 친 '정말로'는 독립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밑줄 친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독립어이다.
② 밑줄 친 '아'는 감탄을 나타내는 독립어이다.
③ 밑줄 친 '민수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독립어이다.
⑤ 밑줄 친 '자유'는 제시어가 그 자체로 독립어가 된 형태이다.

09 〈보기〉의 문장에서 ㉠'우아'는 감탄을 나타내는 독립어, ㉡'밤하늘에'는 '어디에'에 해당하며 '떴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밝은'은 '어떤'에 해당하며 '보름달'을 꾸며 주는 관형어, ㉣'보름달이'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 ㉤'두둥실'은 '어떻게'에 해당하며 '떴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떴다'는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②에서 ㉡, ㉢이 관형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오답 풀이 |

③ ㉠은 독립어로 독립 성분이다. ㉣은 주어, ㉥은 서술어로 주성분이다.
④ ㉡'밤하늘에'는 부사어로 문장 안에서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⑤ ㉡'밤하늘에'는 부사어, ㉢'밝은'은 관형어, ㉤'두둥실'은 부사어로 모두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해 주는 부속 성분이다.

10 ①~③, ⑤의 밑줄 친 부분은 체언 앞에 놓여 이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④의 밑줄 친 '골고루'만 '먹는다'라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골고루'는 부사가 그 자체로 부사어가 된 형태로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사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밑줄 친 '친구'는 '누구의'에 해당하는 말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의 관형어이다.
② 밑줄 친 '시골'은 '무엇의'에 해당하는 말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의 관형어이다.
③ 밑줄 친 '달콤한'은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의 관형어이다.
⑤ 밑줄 친 '귀여운'은 '어떤'에 해당하는 말로 체언 '강아지'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11 〈보기〉의 문장에서 ㉠은 체언 '민들레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은 용언 '피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평가 기준 |

(1)

㉠과 ㉡의 문장 성분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점
㉠과 ㉡의 문장 성분 중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2)

㉠과 ㉡의 문장 성분이 다른 이유를 〈조건〉에 맞게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과 ㉡의 문장 성분의 근거를 〈조건〉에 맞게 썼으나 한 개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12 〈보기〉의 문장에서 ㉠'우아'는 독립어, ㉡'귀여운'은 관형어, ㉢'올챙이가'는 주어, ㉣'벌써'는 부사어, ㉤'개구리가'는 보어, ㉥'되었구나'는 서술어이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 '관형어, 부사어'는 부속 성분, '독립어'는 독립 성분이다.

| 평가 기준 |

(1)

㉢, ㉤, ㉥ 세 개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3점
㉢, ㉤, ㉥ 중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각 1점

(2)

㉢, ㉤, ㉥이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주성분임을 밝히고 ㉡, ㉣이 부속 성분, ㉠이 독립 성분임을 모두 구분하여 서술한 경우	6점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중 주성분에 관한 서술을 포함하여 두 개만 구분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중 주성분에 관해서만 서술한 경우	2점

STEP B 단원별 내신 실전 문제

본문 123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③ **06** (1) ㉠ – 동화책, ㉡ – 노래를, ㉢ – 반찬도 (2) 예시 답안 ㉠의 '동화책'은 체언만 나타나고 조사가 생략된 형태, ㉡의 '노래를'은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붙은 형태, ㉢의 '반찬도'는 체언에 보조사가 붙은 형태의 목적어이다. 이들은 문장에서 각각 서술어 '읽어요', '부른다', '먹어라'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목적어에 해당한다.

07 ② **08** ① **09** ④ **10** ③ **11** 예시 답안 '힘껏'과 '조금'은 각각 용언 '지르니'와 '풀린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어이고, '답답한'은 체언 '마음'을 꾸며 주므로 관형어이다.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③ **18** ③ **19** ⑤ **20** (1) 결말이, 났구나 (2) 그, 일의, 그렇게 (3) 오호

01 '꽃.'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에 해당한다. 원래 문장 '나는 꽃을 보고 있어.'에서 '꽃을'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므로 목적어이다.

02 ④의 '되다(되었다)'는 동사이므로 의미상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수는 마침내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이 아니라 ㉠의 예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좋아하다(좋아한다)'는 동사로 의미상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② '넣다(넣었다)'는 동사로 의미상 '어찌하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부지런하다'는 형용사로 의미상 '어떠하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하다.

⑤ '주장이다'는 '체언 + 서술격 조사'의 형태로 의미상 '무엇이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예로 적절하다.

03 ㉡의 서술어 '샀다'는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디에'에 해당하는 말로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였으며,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아니다'는 형용사이므로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③ ㉠은 '관형어 + 주어 + 보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목적어가 쓰이지 않았다. ㉡은 '주어 + 부사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목적어가 쓰였다.

④ ㉠에서 서술어 '아니다'의 주체가 되는 말인 주어는 '바구니는'이고 ㉡에서 서술어 '샀다'의 주체가 되는 말인 주어는 '우리는'이다.

⑤ ㉠에 쓰인 주성분은 '주어, 보어, 서술어'이고 ㉡에 쓰인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이므로 둘 다 주성분의 종류가 세 개씩 있다.

04 ㉤의 '정부에서'에 쓰인 조사 '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단체나 기관, 조직 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동생'은 주격 조사 '이'나 보조사 '은' 등이 생략된 형태로,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② ㉡에서는 '성공하다'라는 용언의 명사형 '성공하기' 뒤에 주격 조사 '가'가 붙어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③ ㉢에서는 '아버지' 뒤에 주격 조사 '께서'를 붙여 주어를 높이고 있다.

④ ㉣에서는 '국민' 뒤에 보조사 '은'이 붙어 주어로 쓰이고 있다.

05 ③'누나가 초콜릿을 바구니에 두었다.'에서 '두다(두었다)'는 주어('누나가'), 목적어('초콜릿을'), 부사어('바구니에')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달리다(달린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닮다(닮았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낳다(낳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되다(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06 ㉠에서 '읽어요'라는 동작의 대상은 '동화책'으로, 이는 목적격 조사 '을'이 생략된 형태이다. ㉡에서 '부른다'라는 동작의 대상은 '노래를'로, 이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형태이다. ㉢에서 '먹어라'라는 동작의 대상은 '반찬도'로, 체언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이다.

| 평가 기준 |

(1)

㉠~㉢의 목적어 세 개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3점
㉠~㉢의 목적어를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각 1점

(2)

㉠~㉢이 목적어인 까닭을 〈조건〉에 맞게 모두 바르게 쓴 경우	6점
㉠~㉢이 목적어인 까닭을 썼으나 목적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만 쓴 경우	3점
㉠~㉢이 목적어인 까닭을 〈조건〉에 맞게 한 개만 쓴 경우	각 2점

07 ②에서 '숭늉'은 '찾는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므로 목적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탑이'는 '무너지랴'의 주체이므로 주어이다. 체언 '탑'에 주격 조사 '이'가 붙은 형태이다.
③ '원숭이도'는 '떨어진다'의 주체이므로 주어이다. 체언 '원숭이'에 보조사 '도'가 붙은 형태이다.
④ '하늘은'은 '돕는다'의 주체이므로 주어이다. 체언 '하늘'에 보조사 '은'이 붙은 형태이다.
⑤ '나무'는 '없다'의 주체이므로 주어이다. 조사가 생략되고 체언만 있는 형태이다.

08 밑줄 친 부분에서 '낡은', '다른', '큰'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우연히', '더', '배로', '순식간에'는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문장에서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따라서 ㉠과 ㉣이 공통적으로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낡은', '큰'은 각각 '낡다', '크다'의 활용형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말이다. 그러나 '우연히'와 '더'는 부사, '다른'은 관형사, '배로'와 '순식간에'는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부사어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이다.
㉢ 다른 문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는 독립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 문장에서 '어떻게', '얼마나'의 의미로 쓰이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관형어는 '어떤', '누구의/무엇의'의 의미로 쓰이는 문장 성분이다.

09 '온갖'은 관형사이므로 관형사가 그 자체로 관형어로 쓰인 ㉠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어떤'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므로,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② 체언 '할아버지'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으므로, '체언 +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체언 '친구'가 조사 없이 단독으로 뒤에 오는 체언 '손목시계'를 꾸며 주므로, '체언 단독'에 해당하는 ㉢의 예로 적절하다.
⑤ 용언 '반짝거리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용언의 관형사형'에 해당하는 ㉣의 예로 적절하다.

10 〈보기 2〉에서 ㉠의 '많이'와 ㉣의 '많이'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므로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의 '좀'은 뒤에 오는 '많이'라는 부사어를 꾸며 주고, ㉡의 '언제'는 뒤에 오는 용언 '먹어도'를 꾸며 준다.
② ㉠의 '많이'는 뒤에 오는 용언 '넣어 주세요'를 꾸며 주고, ㉡의 '확실히'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④ ㉡의 '참'은 뒤에 오는 용언 '기막히다'를 꾸며 주고, ㉢의 '배불리'도 뒤에 오는 용언 '먹었다'를 꾸며 준다. 둘 다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다.
⑤ ㉢의 '집에'는 '들어가다(들어가)'라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이고, ㉣의 '순댓국과'는 '비슷하다(비슷한)'라는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이므로 둘 다 생략할 수 없다.

11 관형어와 부사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꾸밈을 받는 말의 차이에 있다.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 준다.

| 평가 기준 |

부속 성분을 모두 찾고, 부속 성분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바르게 쓴 경우	4점
부속 성분과 부속 성분의 종류를 정확하게 썼으나, 기준을 포함하여 쓰지 못한 경우	2점
부속 성분만 모두 찾아 쓴 경우	1점

12 제시된 문장에서 부사어 '제발'은 문장의 맨 앞, 중간, 맨 뒤 등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된 문장들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어만 제시되고 있어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⑤ '제발'은 특정 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 부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에 해당한다.

④ '제발'은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므로 문장을 구성할 때 꼭 필요하지 않다.

13 독립 성분에 해당하는 독립어는 부름, 대답, 감탄, 놀람 등을 나타내는 말(㉡)로,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 오답 풀이 |

㉠ 독립어는 주로 '감탄사', '체언 + 호격 조사', '제시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이다.

㉢ 독립어는 대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지만,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14 ㉢'그러면'은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로 부사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준혁아'는 체언 '준혁'에 호격 조사 '아'가 붙은 형태로 부름을 나타내는 독립어에 해당한다.

② ㉡'아니요'는 윗사람(아버지)의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독립어에 해당한다.

④ ㉣'우아'는 뜻밖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는 소리를 뜻하는 감탄사로 독립어에 해당한다.

⑤ ㉤'그래'는 상대방(준혁)의 말에 대한 감탄이나 가벼운 놀람을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로 독립어에 해당한다.

15 〈보기〉에서 '그들마저'는 서술어 '이루었다'의 주체가 되는 말인 주어이다.

| 오답 풀이 |

② 체언 '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로, 뒤에 오는 명사 '도움'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로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체언 '도움'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한 형태로, 서술어 '이루었다'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어로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아주'는 부사로, 그 자체로 뒤에 오는 관형어 '오래된'을 꾸며 주고 있다. 따라서 '오래된'을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용언 '오래되다'의 어간 '오래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 '소망'을 꾸며 주고 있다. 따라서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16 ②의 '어제 나는 박물관을 다녀왔다.'에서 '박물관을'은 서술어 '다녀왔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고 '나는 줄넘기도 좋아한다.'에서 '줄넘기도'는 서술어 '좋아한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따라서 ②에서만 문장 성분이 목적어로 같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것은 문제도 아니다.'에서 '문제도'는 서술어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오빠는 볶음밥도 잘한다.'에서 '볶음밥도'는 '잘한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③ '귀여운 꼬마는 새 신발을 신었다.'에서 '새'는 뒤에 오는 체언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우리는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했다.'에서 '가볍게'는 뒤에 오는 용언 '산책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④ '할머니께서는 고양이를 많이 기르신다.'에서 '많이'는 뒤에 오는 용언 '기르신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모여들었다.'에서 '많은'은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⑤ '글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에서 '글쎄'는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로 독립어이다. '마침내 네 꿈이 이루어졌구나!'에서 '마침내'는 '드디어 마지막에는'을 뜻하는 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17 ㉠에는 서술어 '되다(되었다)'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가 들어가야 한다. ㉡에는 서술어 '먹다(먹었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한다.

18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에서 '적합하다'는 주어 '기후는' 이외에 필수적 부사어 '벼농사에'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왔다(오다)'와 ㉤의 '빌려주었다(빌려주다)'는 모두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풀이하는 동사로, '어찌하다' 형태의 서술어이다.

② ㉡의 '다정했다(다정하다)'와 ㉢의 '적합하다'는 주어의 성질

이나 상태를 풀이하는 형용사로, '어떠하다' 형태의 서술어이다.
④ ㉣의 '친구이다'는 체언 '친구'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의 문장인 '나는(주어) 어제(부사어) 학교에서(부사어) 책을(목적어) 친구에게(필수적 부사어) 빌려주었다(서술어).'에서 서술어 '빌려주었다'는 주어, 목적어 외에도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필수적 부사어(친구에게)까지 총 세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19 〈보기〉에 제시된 '거미가 벽 위로 기어간다.'의 문장 성분은 '주어 + 관형어 + 부사어 + 서술어'로 배열되어 있다. ⑤ 역시 주어 '매미가', 관형어 '커다란', 부사어 '나무에서', 서술어 '울어 대고 있다'로 이루어져 있다.

| 오답 풀이 |

① '관형어 + 주어 + 부사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② '관형어 + 부사어 +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③ '주어 + 부사어 + 관형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④ '주어 + 부사어 + 부사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20 〈보기〉의 문장에서 주어는 '결말이'이고 서술어는 '났구나'이다. '그'는 체언 '일'을 꾸며 주는 관형어, '일의'는 체언 '결말'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그렇게'는 용언 '났구나'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오호'는 무언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인 감탄사로 독립어이다. 주성분으로 주어와 서술어, 부속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 독립 성분으로 독립어가 들어가야 한다.

| 평가 기준 |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6점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을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각 2점

개념 11 홑문장과 겹문장

본문 127쪽

1 홑문장 **2** 겹문장 **3** 안은문장 **4** (1) 지고, 떴다, 겹문장 (2) 있다, 홑문장 (3) 모였다, 홑문장 (4) 좋아하고, 좋아한다, 겹문장 (5) 떠오르면, 한다, 겹문장 **5** (1) ㉠ (2) ㉡

4 (1) '해가 지고 달이 떴다.'는 '주어 + 서술어 +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겹문장이다.
(2)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주어 + 관형어 + 부사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3) '많은 사람이 넓은 공원에 모였다.'는 '관형어 + 주어 + 관형어 + 부사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관형어, 부사어 등 부속 성분이 많이 나타나서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면 홑문장에 속한다.
(4) '나는 떡을 좋아하고 누나는 빵을 좋아한다.'는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두 개의 홑문장, 즉 '나는 떡을 좋아한다.'와 '누나는 빵을 좋아한다.'가 연결 어미 '-고'로 나란히 이어지는 겹문장이다.
(5) '동산에 달이 떠오르면 사람들이 강강술래를 한다.'는 '부사어 + 주어 + 서술어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5 ㉠은 '야구는 신난다.'와 '야구는 재미있다.'가 연결 어미 '-고'로 나란히 이어지는 문장이므로 이어진문장에 해당한다. ㉡은 '과학자가 되기'가 '소망한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개념 12 이어진문장 – ❶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본문 128쪽

1 없다 **2** (1) -고 (2) -지만 (3) -든지, -든지 (4) -며 **3** (1) ㉠ (2) ㉡ (3) ㉢ (4) ㉠ (5) ㉡

2 (1) '강물이 맑다.'와 '강물이 차갑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한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2) '가슴은 뜨겁다.'와 '머리는 차갑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한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3) '장갑을 끼든지 해라.'와 '모자를 쓰든지 해라.'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 '-든지'에 의해 대등한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4) '봄에는 꽃이 핀다.'와 '가을에는 낙엽이 진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 '-며'에 의해 대등한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3 (1)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분다.'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2) '밥을 먹었지만 배가 고프다.'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내용이 서로 다른 문장이 앞뒤로 연결되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3)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해라.'는 연결 어미 '-거나'에 의해 앞뒤 문장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4)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친다.'는 연결 어미 '-며'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5) '나는 사과는 싫어하지만 배는 좋아한다.'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내용이 서로 다른 문장이 앞뒤로 연결되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개념 13 이어진문장 – ❷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본문 129쪽

1 달라진다 **2** (1) –러, 목적 (2) –면, 조건 (3) –더라도, 양보 (4) –는데, 배경 **3** (1) ㉡ (2) ㉢ (3) ㉠ (4) ㉣ (5) ㉤

1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앞과 뒤의 문장이 '원인, 조건, 목적, 배경, 양보' 등의 의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앞과 뒤의 문장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2 (1) '두부를 사러 시장에 간다.'는 '두부를 산다.'라는 앞 문장이 '시장에 간다.'라는 뒤 문장의 목적이 됨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러'에 의해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2) '독서를 하면 지식이 늘어난다.'는 '독서를 한다.'라는 앞 문장이 '지식이 늘어난다.'라는 뒤 문장의 조건이 됨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3) '머리가 아프더라도 공부를 한다.'는 '머리가 아프다.'라는 앞 문장이 '공부를 한다.'라는 뒤 문장의 가상의 상황이 됨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더라도'에 의해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4) '도서관에 가는데 소나기가 내린다.'는 '도서관에 간다.'라는 앞 문장이 '소나기가 내린다.'라는 뒤 문장의 배경, 상황이 됨을 의미하는 연결 어미 '–는데'에 의해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개념 14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본문 131쪽

1 안은문장 **2** 안긴문장 **3** 절 **4** (1) ○ (2) ○ (3) × (4) ○ (5) ○ (6) × **5** (1) 서술어 (2) 부사어 (3) 관형어 (4) 목적어 (5) 주어 (6) 목적어 **6** (1) 주머니가 많다 (2) 화살과 같이 (3) 모자를 쓴 (4) 어디 아프냐고 (5) 비가 내리기 **7** (1) 서술절 (2) 명사절 (3) 관형절 (4) 부사절 (5) 인용절 **8** (1) ㉠, ㉡ (2) ㉢

4 (3)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며 체언을 꾸며 준다.

(6)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을 인용한 조사 '(이)라고', '고'가 붙어 만들어진다.

5 (1) '진구는 얼굴이 동그랗다.'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얼굴이 동그랗다'는 주어 '진구는'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2) '그녀는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부사절 '눈이 부시게'는 용언 '아름답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3) '성태가 전학을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관형절 '성태가 전학을 간다는'은 체언 '소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4) '윤아는 그가 유명한 화가임을 알았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명사절 '그가 유명한 화가임'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5) '그가 거기에 있음이 분명했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명사절 '그가 거기에 있음'에 주격 조사 '이'가 붙어 주어의 역할을 한다.

(6) '농부는 벼가 잘 자라기를 바란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명사절 '벼가 잘 자라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6 (1) '이 가방은 주머니가 많다.'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주머니가 많다'는 주어 '가방은'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2)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부사절 '화살과 같이'는 용언 '빠르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3) '모자를 쓴 남자가 우리 형이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관형절 '모자를 쓴'은 체언 '남자'를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4) '지수는 나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인용절 '어디 아프냐고'는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 만들어진 간접 인용절이다.

(5) '농부들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명사절 '비가 내리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7 (1) '토끼는 귀가 길다.'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귀가 길다'는 주어 '토끼는'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2) '나는 그가 정직함을 믿는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명사절 '그가 정직함'은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 만들어졌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3) '이것은 내가 만든 케이크이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관형절 '내가 만든'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만들어졌고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4) '나그네는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부사절 '인사도 없이'는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졌고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5) '그녀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했다.'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인용절 '자신이 행복하다고'는 인용격 조사 '고'가 붙은 간접 인용절에 해당한다.

8 직접 인용절은 큰따옴표(“ ”)가 쓰이고 인용격 조사 ‘(이)라고’와 결합한 형태이다. 간접 인용절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격 조사 ‘고’와 결합한 형태이다.

STEP 1 개념 Drill 11~14 본문 132쪽

1 ○ 2 ○ 3 × 4 ○ 5 × 6 ○ 7 홑
8 겹 9 겹 10 홑 11 겹 12 홑 13 종속
14 종속 15 대등 16 대등 17 나열 18 대조
19 목적 20 양보 21 명사절 22 관형절 23 부사절 24 서술절 25 인용절

3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나란히 이어지는 문장으로,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다.

5 안긴문장은 절(節)의 형태로 안은문장 속으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

7 ‘아기가’는 주어, ‘방긋’은 부사어, ‘웃는다’는 서술어이다. 이처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제시된 문장은 홑문장이다.

11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낮말은 새가 듣는다.’와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13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는 ‘원인’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14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이 되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17 ‘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른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18 ‘산골짜기에 눈이 내렸지만 쌓이지는 않았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내용이 서로 다른 문장이 앞뒤로 연결되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19 ‘엄마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러’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목적이 되는 ‘목적’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20 ‘눈이 내리더라도 우리는 예정대로 출발할 것이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더라도’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가상의 상황이 되는 ‘양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21 ‘나는 동생이 합격했음을 알았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동생이 합격했음’은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22 ‘저것은 어제 내가 산 가방이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어제 내가 산’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만들어진 관형절이다.

23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아무 말도 없이’는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24 ‘선우는 마음씨가 곱다.’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마음씨가 곱다’는 주어 ‘선우는’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25 ‘주현이가 “나는 갈게.”라고 말했다.’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밑줄 친 부분은 인용격 조사 ‘라고’가 붙어 만들어진 직접 인용절이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33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① **05** ④ **06** ⑤
07 ⑤ **08** ③ **09** ④ **10** ④ **11** (1) ㉠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2) 예시 답안 ㉠은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어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다. ㉡은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12** (1) 그가 보낸, 관형절 (2) 예시 답안 ‘그가 보낸’은 문장에서 체언 ‘편지’를 꾸며 주며,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01 ④‘그녀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는 ‘주어 + 부사어 + 보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여름이 간다.'와 '가을이 온다.'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② '눈이 오다.'와 '길이 미끄럽다.'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③ '그가 젊다.'가 '나는 생각한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⑤ '형은 키가 크다.'와 '나는 키가 작다.'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02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소설책을 읽었다.'라는 문장은 '주어 + 부사어 + 부사어 + 목적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② 이 문장은 홑문장이므로 안은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문장은 홑문장이므로 이어진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읽었다'이므로 한 개이다.

03 ③'배가 고파서 햄버거를 먹었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는 '원인'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 오답 풀이 |
① '키는 크지만 힘은 약하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내용이 서로 다른 문장이 앞뒤로 연결되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②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자.'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거나'에 의해 하나를 골라야 하는 문장이 앞뒤로 연결된 '선택'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④ '하늘은 맑으며 바람은 시원하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으며'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⑤ '나는 사과를 먹고 동생은 배를 먹는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04 〈보기〉의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내용이 서로 다른 문장이 앞뒤로 연결되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①'산은 높으나 바다는 깊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으나'에 의해 내용이 서로 다른 문장이 앞뒤로 연결되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 오답 풀이 |
②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거나'에 의해 앞뒤 문장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③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으며'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④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든지'에 의해 앞뒤 문장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⑤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05 ④'많은 비가 와서 길이 막혔다.'는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는 '원인'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 오답 풀이 |
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는 연결 어미 '-(아)야'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이 되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②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자.'는 연결 어미 '-으면'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이 되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③ '열이 나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이 되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⑤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이 되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06 〈보기〉에 제시된 ㉠'우진이는 웃고 지수는 울었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신영이는 배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는 '원인'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 오답 풀이 |
① ㉠과 ㉡은 모두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된 겹문장에 해당한다.
②, ③, ④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고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7 관형절은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며 체언을 꾸며 준다. ⑤'우리는 선생님께서 찍어 주신 사진을 보았다.'는 '선생님께서 찍어 주신'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복도를 소리 없이 걸었다.'는 '소리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저 고양이는 귀가 매우 특이하다.'는 '귀가 매우 특이하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그녀는 슬픔을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슬픔을 견디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여행을 가신다고'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8 '우리는 그가 성실함을 알았다.'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명사절은 뒤에 붙는 조사에 따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역할을 한다. 명사절 '그가 성실함'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었으므로 목적어에 해당한다.

09 '나는 어제 부산에서 산 모자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했다.'는 '나는 어제 부산에서 산 모자를 잃어버렸다.'와 '나는 마음이 상했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 '-어서'로 이어져 있는 겹문장이다.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는 '원인'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② 앞 문장 '나는 어제 부산에서 산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뒤 문장 '나는 마음이 상했다.'의 원인이 된다.
③ '어제 부산에서 산'은 뒤에 오는 체언 '모자'를 꾸며 준다.
⑤ '나는 어제 부산에서 산 모자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했다.'는 '어제 부산에서 산'이라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

10 '이것은 떡이다.'와 '저것은 빵이다.'가 연결 어미 '-며'에 의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 '꽃이 활짝 피었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② '나는 그가 멋지다고 생각한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③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조건이 되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⑤ '범인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범인이 도망쳤다는'은 체언 '소문'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11 〈보기〉에 제시된 ㉠'나는 책을 읽고 동생은 음악을 듣는다.'는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뒤 문장이 나란히 놓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다. ㉡'길이 막혀서 약속에 늦었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 되는 '원인'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거나 의미가 달라진다.

| 평가 기준 |

(1)

㉠과 ㉡의 이어진문장의 종류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점
㉠과 ㉡ 중 이어진문장의 종류를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2)

㉠과 ㉡ 각각에 대해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의 의미 변화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4점
㉠과 ㉡ 각각에 대해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 또는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의 의미 변화 중 한 개만 서술한 경우	2점
㉠과 ㉡ 중 한 개만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의 의미 변화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12 〈보기〉에 제시된 문장에서 관형절 '그가 보낸'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며 뒤에 오는 체언 '편지'를 꾸며 준다.

| 평가 기준 |

(1)

안은문장 속 안긴문장을 찾아 쓰고, 안은문장의 종류를 바르게 쓴 경우	2점
안은문장 속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종류 중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2)

안은문장 속 안긴문장이 체언을 꾸며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장 성분의 역할을 서술한 경우	4점
안은문장 속 안긴문장이 체언을 꾸며 준다는 내용 또는 문장 성분의 역할만 서술한 경우	2점

개념 15 종결 표현

본문 137쪽

1 종결 어미 **2** 마지막 **3**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4** (1) ○ (2) ○ (3) × (4) ○ (5) × (6) ○ (7) ○ **5** (1) 평서문 (2) 감탄문 (3) 명령문 (4) 청유문 (5) 의문문 **6** (1) -네, 평서문 (2) -구나, 감탄문 (3) -자, 청유문 (4) -니, 의문문 (5) -아라, 명령문 **7** (1) 가자. (2) 가니? **8** (1) ㉡ (2) ㉠ (3) ㉢

4 (3)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는 동사만 올 수 있다.
(5)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명령문의 특징이다. 청유문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5 (1)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등산을 한다.'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하고 있고, '-ㄴ다'의 종결 어미와 마침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으므로 평서문에 해당한다.
(2)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이루었구나!'는 말하는 이가 기쁨, 놀람 등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 '-구나'의 종결 어미와 느낌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으므로 감탄문에 해당한다.
(3) '급식을 남기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어라'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으므로 명령문에 해당한다.
(4) '우리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 축구를 하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요청하고 있고, '-자'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으므로 청유문에 해당한다.
(5) '여름 방학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가도 될까?'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 '-ㄹ까'의 종결 어미와 물음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고 있으므로 의문문에 해당한다.

6 (1) '닫네'는 용언 '닫다'의 어간 '닫-'에 평서형 종결 어미 '-네'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종결 표현의 종류는 평서문이다.
(2) '아름답구나'는 용언 '아름답다'의 어간 '아름답-'에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종결 표현의 종류는 감탄문이다.
(3) '보자'는 용언 '보다'의 어간 '보-'에 청유형 종결 어미 '-자'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종결 표현의 종류는 청유문이다.
(4) '있니'는 용언 '있다'의 어간 '있-'에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종결 표현의 종류는 의문문이다.
(5) '보아라'는 용언 '보다'의 어간 '보-'에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종결 표현의 종류는 명령문이다.

8 ㉠은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판정 의문문이고 ㉡은 의문사가 포함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설명 의문문이다. ㉢은 실제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강조하여 서술, 명령, 감탄 등을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이다.

개념 16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본문 138쪽

1 능동 **2** 피동 **3** (1) 능동 (2) 피동 (3) 피동 **4** (1) ㉢ (2) ㉤ (3) ㉠, ㉡, ㉣

3 (1) '사자가 생쥐를 잡았다.'에서 사자는 자기 힘으로 생쥐를 잡은 것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2) '전봇대가 폭풍에 뽑혔다.'에서 전봇대는 자기 힘이 아니라 폭풍에 의해 뽑힘을 당한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다. '뽑혔다(뽑히었다)'는 동사의 어근 '뽑-'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형태이다.
(3) '지수가 모기에게 물렸다.'에서 지수는 자기 힘이 아니라 모기에 의해 물림을 당한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다. '물렸다(물리었다)'는 동사의 어근 '물-'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형태이다.

4 (1) 일부 명사(한자어) 뒤에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끊어진 다리가 복구되었다.'는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였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형태이다.
(2) 용언의 어간에 '-아 / -어지다', '-게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우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우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형태이다.
(3) 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꽃이 바람에 꺾였다.'는 '바람이 꽃을 꺾었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형태이다. ㉡'수수께끼를 모두 맞혔다.'는 '수수께끼가 모두 맞았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형태이다. ㉣'아기가 어머니에게 안겼다.'는 '어머니가 아기를 안았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형태이다.

개념 17 인용 표현

본문 139쪽

1 직접 **2** 높인다 **3** (1) 간접 (2) 직접 **4** 은수가 빨리 오라고 외쳤다. **5** (2) ○

3 (1) '그가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는 문장 부호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2) '누나가 "언제 학교에 가니?"라고 물었다.'는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한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4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마치 자신이 그 말을 전하는 것처럼 인용절의 인칭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주어진 '은수가 "빨리 와."라고 외쳤다.'라는 문장은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직접 인용절("빨리 와."라고)에서 문장 부호를 빼고 조사 '라고' 대신 '고'를 사용하여 '빨리 오라고'로 바꿀 수 있다.

5 '그는 나에게 "내일 떠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문장은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직접 인용절("내일 떠나겠다."라고)에서 먼저 문장 부호를 빼고 조사 '라고' 대신 '고'를 사용하여 바꾼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 '내일'을 '다음 날'로 바꾸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STEP 1 개념 Drill 15~17 본문 140쪽

1 ○ **2** ○ **3** × **4** × **5** ○ **6** ○ **7** 명령문
8 의문문 **9** 청유문 **10** 평서문 **11** 감탄문 **12** 판정
13 수사 **14** 설명 **15** 피동 **16** 피동 **17** 능동
18 능동 **19** 피동 **20**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21**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22**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업혔다.
23 아버지께서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24** 지우가 자기는 거기 있겠다고 말했다. **25** 동생이 비가 올 것 같다고 외쳤다.

3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듣는 이가 되고, 청유문의 주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포함된다.

4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7 명령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동사에 종결 어미 '-아라/-어라', '-게', '-ㅂ시오' 등이 붙는다.

8 의문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물음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는다. 종결 어미는 '-(으)니', '-(으)ㄹ까', '-느냐/-냐', '-ㅂ니까' 등이 붙는다.

9 청유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문장이다. 동사에 종결 어미 '-자', '-세', '-ㅂ시다' 등이 붙는다.

10 평서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이다. 종결 어미는 '-다', '-(ㄴ)다', '-ㅂ니다', '-네', '-오' 등이 붙는다.

11 감탄문은 말하는 이가 기쁨, 슬픔, 놀람 등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느낌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맺는다. 종결 어미는 '-구나', '-아라/-어라', '-군' 등이 붙는다.

12 '너 숙제 다 했니?'는 '예' 또는 '아니요'와 같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한다.

13 '누가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겠니?'는 듣는 이에게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감탄의 표현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14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니?'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15 '생선이 많이 잡힌다.'에서 '잡힌다'는 동사의 어근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이 문장은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16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에 담겼다.'에서 '담겼다(담기었다)'는 동사의 어근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형태이다.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에 담기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17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을 복구했다.'에서 '사람들이'가 '건물을 복구하는' 동작을 직접 하는 주체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19 '이번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에서 '희생되었다'는 명사 '희생'에 '-되다'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이 문장은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20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동사의 어근 '잡-'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21 '바람이 나무를 흔든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동사의 어근 '흔들-'에 피동 접미사 '-리-'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22 '엄마가 갓난아기를 업었다.'라는 문장에서 주어를 부사어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동사의 어근 '업-'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피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23 주어진 문장 '아버지께서 "앉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직접 인용절("앉아라."라고)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앉으라고'의 형태가 된다.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쓸 때 높임 표현(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은 그대로 유지된다.

24 주어진 문장 '지우가 "나는 여기 있을게."라고 말했다.'는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직접 인용절("나는 여기 있을게."라고)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는 거기 있겠다고'의 형태가 된다.

25 주어진 문장 '동생이 "비가 올 것 같아."라고 외쳤다.'는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직접 인용절("비가 올 것 같아."라고)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비가 올 것 같다고'의 형태가 된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41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① **06** ③
07 ③ **08** ③ **09** ⑤ **10** (1)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겼다. (2) 예시 답안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에서 부사어로,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에서 주어로 바뀐다. **11** (1) 우진이가 어제 자기는 오늘 떠난다고 말했다. (2) 예시 답안 인칭 대명사 '나'는 말하는 사람인 우진이를 가리키는 '자기'로, 시간 표현 '내일'은 우진이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오늘'로 바뀐다.

01 〈보기〉에서는 청유문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⑤에서 동사에 종결 어미 '-자'가 붙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청유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종결 어미 '-거라'가 붙어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명령문이다.
② '우리'라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 함께하는 느낌을 주지만, '-ㄹ까'라는 종결 어미가 붙어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③ 종결 어미 '-다'가 붙어 말하는 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평서문이다.
④ 종결 어미 '-구나'가 붙어 말하는 이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탄을 표현하는 감탄문이다.

02 ㉠은 '-자'라는 종결 어미가 붙어 상대방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요청하므로 청유문, ㉡은 '-니'라는 종결 어미가 붙어 상대방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므로 의문문, ㉢은 '-어라'라는 종결 어미가 붙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므로 명령문, ㉣은 '-다'라는 종결 어미가 붙어 어떤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평서문, ㉤은 '-구나'라는 종결 어미가 붙어 느낌이나 감탄을 나타내므로 감탄문이다. 따라서 '④ 청유문-의문문-명령문-평서문-감탄문' 순으로 분류한 것이 알맞다.

03 ④의 문장은 눈이 오면 얼마나 좋은지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눈이 오면 정말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라는 강한 느낌을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언제'라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창문을 '언제' 닫았는지 구체적인 시간(정보)을 대답해 달라고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② '몇'이라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속 시간을 정하기 위해 '몇 시'라는 정보를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③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먹고 있는 음식의 이름을 대답해 달라고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⑤ '누구'라는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식을 전해 준 사람의 이름이나 대상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04 ⑤에서 '-되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지만, '잡았다'와 같은 동사의 어간에 붙어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교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라는 문장은 누가 동작을 했는지 그 동작의 주체가 불분명하기에 피동 표현에 대응하는 능동 표현을 만들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②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③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였다.'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⑤ '연구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와 같이 능동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06 주어진 문장은 큰따옴표(" ")와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는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이 문장에는 직접 인용절("제가 범인입니다."라고)이 나타나 있다.

07 주어진 문장의 직접 인용절("나는 학교에 간다."라고)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칭 대명사 '나'를 '자기'로,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적절하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르게 바꾼 것은 ③이다.

08 민수의 두 번째 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 풀었겠어?"는 지수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묻거나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수사 의문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민수의 첫 번째 말은 '예' 또는 '아니요'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판정 의문문이다.
② 지수의 대답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평서문이다.
④ 민수의 두 번째 말은 실제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이다.
⑤ 민수의 두 번째 말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풀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09 〈보기〉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능동 표현이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는 피동 표현이다.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보나 사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주어인 경찰이 직접 도둑을 잡는 행동을 하므로 능동 표현이다.
② ㉡의 '잡혔다(잡히었다)'는 '잡았다'의 어근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형태이다.
③ ㉠의 목적어 '도둑을'은 ㉡에서 주어 '도둑이'로 바뀌었다.
④ ㉠의 주어 '경찰이'는 ㉡에서 부사어인 '경찰에게'로 바뀌었다.

10 〈보기〉에 제시된 능동 표현 '사냥꾼이 사슴을 쫓았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겼다.'이다. 이때 능동 표현의 주어 '사냥꾼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 '사냥꾼에게'로 바뀌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 '사슴을'은 피동 표현의 주어 '사슴이'로 바뀐다. 능동 표현의 서술어 '쫓았다'는 피동 표현에서 동사의 어근 '쫓-'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쫓겼다'로 형태가 바뀐다.

| 평가 기준 |

(1)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를 바르게 쓴 경우	2점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었으나 주어, 부사어, 서술어 중 한 개를 잘못 쓴 경우	1점

(2)

능동 표현의 주어가 피동 표현에서 부사어로, 능동 표현의 목적어가 피동 표현에서 주어로 바뀐다는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능동 표현의 주어와 목적어 중 한 개의 성분 변화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1점

11 〈보기〉의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우진이가 어제 자기는 오늘 떠난다고 말했다.'이다. 〈보기〉의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인칭 대명사와 시간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 평가 기준 |

(1)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인칭 대명사(나 → 자기), 시간 표현(내일 → 오늘), 조사(라고 → 고), 문장 부호를 모두 바르게 바꾸어 쓴 경우	3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인칭 대명사, 시간 표현, 조사, 문장 부호 중 한 개를 잘못 바꾸어 쓴 경우	2점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인칭 대명사, 시간 표현, 조사, 문장 부호 중 두 개를 잘못 바꾸어 쓴 경우	1점

(2)

인칭 대명사(나 → 자기), 시간 표현(내일 → 오늘)의 변화를 모두 쓰고, 각각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표현이 달라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인칭 대명사와 시간 표현의 변화를 정확하게 서술하였으나, 변화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3점
인칭 대명사 또는 시간 표현의 변화 중 한 개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1점

STEP 3 단원별 내신 실전 문제

본문 144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⑤ **07** ⑤ **08** 예시 답안 '사람이 바로 너란다.'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이 결합한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1) 예시 답안 눈이 (길에) 쌓여서/쌓이니/쌓이자 길이 미끄럽다. (2) 예시 답안 눈이 쌓인 길이 미끄럽다. **15** ① **16** ⑤ **17** ③ **18** ⑤ **19** ⑤ **20** ① **21** ③

01 ㉠~㉤은 모두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따라서 서술어가 한 번 나오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나오면 겹문장에 해당한다. ㉠의 서술어는 '취한다', ㉢의 서술어는 '움직인다', ㉣의 서술어는 '구분한다'이므로 ㉠, ㉢, ㉣은 모두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홑문장이다.

| 오답 풀이 |

㉡의 서술어는 '하거나'와 '걷는다'이고 ㉤의 서술어는 '자기'와 '줄인다'이므로 ㉡, ㉤은 서술어가 두 번 나오는 겹문장이다.

02 ㉠은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라는 문장이 '돌이 구르다.'라는 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은 '사공이 많다.'와 '배가 산으로 간다.'가 '조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에는 관형어 '구르는'과 부사어 '안'이라는 부속 성분이 쓰였다. ㉡에도 부사어 '산으로'라는 부속 성분이 쓰였다.

② ㉠과 ㉡은 둘 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④ 이어진문장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다.

⑤ 안은문장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다.

03 '지금 걸어오는 학생이 내 친구이다.'는 '학생이 지금 걸어온다.'와 '학생이 내 친구이다.'가 결합한 겹문장이다. 관형절 '지금 걸어오는'의 주어 '학생이'가 전체 문장의 주어 '학생이'와 중복되어 생략된 것이다.

04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엄마는 활짝, 아기는 방긋 웃는다.'와 같이 앞뒤 문장의 동일한 서술어 '웃다'를 생략해도 의미에 변화가 없어서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앞뒤 문장의 동일한 서술어 '웃다'를 생략하면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되어 생략이 불가능하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 ㉠과 ㉡은 둘 다 이어진문장으로, ㉠은 두 개의 홑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고 ㉡은 두 개의 홑문장이 '조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④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아기가 웃어야 엄마가 웃는다.'와 같이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05 ③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은 '원인', ②는 '조건', ④는 '목적' ⑤는 '배경'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6 ㉠, ㉡, ㉢은 모두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은 연결 어미 '-거나'를 사용하여 '선택'의 의미 관계를, ㉡은 연결 어미 '-지만'을 사용하여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은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다.

07 '-는데'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배경이나 상황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⑤의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 옛 친구와 마주쳤다.'는 '배경'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양보'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비가 많이 와서'는 운동회를 취소한 '원인'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예이다.

② '날씨가 좋으면'은 소풍을 가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예이다.

③ '나에게 붕어빵을 주려고'는 지수가 뛰어온 '목적'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예이다.

④ '도로 사정이 안 좋은데'는 '버스를 탈까?'에 대한 '배경'을 나타내므로 적절한 예이다.

08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너란다.'는 '사람이 바로 너란다.'라는 홑문장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홑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사람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로 중복되어 쓰이고 있으므로 안긴문장에서는 생략되었다.

| 평가 기준 |

홑문장 두 개와 겹문장의 종류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5점
홑문장 한 개와 겹문장의 종류를 바르게 쓴 경우	3점
홑문장 두 개를 바르게 썼으나 겹문장의 종류를 쓰지 못한 경우	
홑문장 한 개만 바르게 쓴 경우	1점

09 ㉠은 주성분인 목적어 '음악'과 서술어 '감상하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은 부속 성분인 관형어 '그의'와 주성분인 주어 '발언이', 서술어 '사실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주어 '취미는'에 대한 서술어의 역할을, ㉡은 뒤에 오는 용언 '좁았다'를 꾸며 뜻을 더해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은 서술어 '알고 있었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다.

② ㉡의 '내', ㉢의 '우리의', ㉣의 '좋은'은 각각 뒤에 오는 체언 '꿈', '선택', '습관'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④ ㉢과 ㉣은 각각 서술어 '입증되었다'와 '쉽지 않다'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⑤ ㉢에는 주어 '선택이'와 서술어 '옳았음'이, ㉤에는 주어 '발언이'와 서술어 '사실임'이 나타나 있다.

10 ㉣은 뒤에 오는 용언 '느껴지는'을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 ㉡, ㉢, ㉤은 각각 뒤에 오는 체언 '사촌 동생 민우', '적', '민우', '방법'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11 ③의 '그는 모두의 희망이 되었다.'는 '주어 + 관형어 + 보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홑문장이다.

| 오답 풀이 |

①의 '생각이 깊다', ②의 '숲이 많다', ④의 '내구성이 뛰어나다', ⑤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서술절이다.

12 ㉠의 밑줄 친 부분 '자식이 행복하기'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절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 오답 풀이 |

② ㉠에서 '자식이 행복하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③ ㉡의 안은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는 '땀이'이다.
④ ㉢의 밑줄 친 부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이 꾸며 주는 '방은'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에 해당한다. 안긴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으며 '내가' 또는 '우리가'로 추측할 수 있다.
⑤ ㉡의 밑줄 친 부분 '발에 땀이 나도록'은 부사절, ㉢의 밑줄 친 부분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은 관형절이다. 모두 부속 성분인 부사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13 〈보기〉의 문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은 체언 '민우'를 꾸며 주는 관형절이고 '포기하지 않게'는 부사절이다. 그리고 직접 인용절("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단다."라고)이 쓰였다.

14 '눈이 길에 쌓이다.'를 원인으로, '길이 미끄럽다.'를 결과로 이어 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원인'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 '-니', '-자' 등을 사용하여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홑문장에 중복되어 쓰인 '길'을 중심으로 안은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의미상 눈이 길에 쌓이면 길이 미끄러워지므로 '눈이 쌓인 길이 미끄럽다.'와 같이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만들 수 있다.

| 평가 기준 |

겹문장 두 개를 모두 〈조건〉에 맞게 바르게 쓴 경우	4점
겹문장 두 개 중 하나만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점

15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문장은 '상처는 상처보다 깊다.'라는 홑문장이 '말이 상처를 입히다.'와 '칼이 상처를 입히다.'라는 두 개의 홑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16 ㉢은 종결 어미 '-자'가 붙은 청유문이다. 하지만 내용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행동하자고 요청하는 의미가 아닌,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은 종결 어미 '-ㅂ니다'가 붙은 평서문이다. 하지만 내용은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가로막은 사람에게 말하는 이가 내릴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요구하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③, ④ ㉡은 종결 어미 '-니'가 붙은 의문문이다. 하지만 내용은 듣는 이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고 요구하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17 '전하다'는 '어떤 것을 상대에게 옮겨 주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18 '사용되다', '취소되다', '형성되다' 등과 같이 일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19 ㉠과 ㉡은 모두 딸이 유리잔을 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능동 표현인 ㉡에 비해 피동 표현인 ㉠은 사실이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을 준다.

| 오답 풀이 |

① ㉠'유리잔이 깨졌어요.'와 ㉡'제가 유리잔을 깼어요.'는 딸이 유리잔을 깬 동일한 사건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② ㉠'유리잔이 깨졌어요.'는 행위의 대상인 '유리잔'을 주어로 나타낸 피동 표현이다. 반면 ㉡'제가 유리잔을 깼어요.'는 행위의 주체인 '제가'를 주어로 나타낸 능동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③ ㉠'유리잔이 깨졌어요.'에서는 유리잔을 깬 책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유리잔을 깼어요.'에서는 '제가'라고 하여 책임의 주체인 딸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유리잔이 깨졌어요.'에서는 유리잔이 깨진 결과만 나타내고 행위의 주체는 숨기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0 직접 인용 표현에서는 조사 '(이)라고'를 붙이므로 ①에서 조사 '고'를 '라고'로 바꾸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④ 간접 인용 표현으로, 문장 부호 없이 조사 '고'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직접 인용 표현으로, 인용한 부분을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조사 '라고'를 사용했으므로 적절하다.

21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맞게 인칭 표현, 종결 표현, 조사, 문장 부호 등을 적절히 바꾸어야 한다. 직접 인용절("저에게 컵 좀 주세요."라고)에서 인칭 대명사 '저'는 '자기', '주세요'는 '달라', '라고'는 '고'로 바뀌어야 하고 문장 부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국어의 규범

개념 01 한글 맞춤법

본문 150쪽

1 소리, 어법 **2** 뜻, 형태소 **3** (1) ○ (2) ○ **4** 붙여, 띄어 **5** 띄어 **6** (1) 꽃이다 (2) 줄 게 (3) 아는 만큼 (4) 너만큼 (5) 결정된 바 (6) 미친 듯이

6 (1), (4)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2), (3), (5), (6) 의존 명사는 그 말 앞에 반드시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다.

개념 02 올바른 표기

본문 151쪽

1 (1) 멨다 (2) 부셨다 (3) 벌였다 (4) 붙이고 **2** (1) 오랜만 (2) 대가 (3) 설렜다 (4) 왠지

2 (3) 표준어는 '설레다'로, 어간 '설레-' 뒤에 선어말 어미 '-었-'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므로 '설레었다'가 올바른 표기이다. 준말은 '설렜다'이다.

개념 03 표준 발음법

본문 153쪽

1 실제, 합리성 **2** ㅏ, ㅓ, ㅣ **3** (1) 쩌 (2) 지혜/지헤 (3) 무니 (4) 혀븨/혀비 (5) 다처 **4** (1) 천눈 (2) 말:씀씨 (3) 눈:싸람 (4) 밤:나무, 생밤 **5** × **6** ○ **7** ○ **8** (1) 박 (2) 끋 (3) 빋 (4) 돋 (5) 엽 (6) 옫 **9** (1) 목 (2) 안따 (3) 할따 (4) 늑따 (5) 물꼬 (6) 말께 **10** 꼬츨 **11** 거돋

3 (1), (5)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따라서 '쪄'의 표준 발음은 [쩌], '다쳐'의 표준 발음은 [다처]이다.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따라서 '지혜'의 표준 발음은 [지혜/지헤]이다.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따라서 '무늬'의 표준 발음은 [무니]이다.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따라서 '협의'의 표준 발음은 [혀븨/혀비]이다.

8 (1)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르면 받침 'ㄲ'은 어말일 때 대표음 [ㄱ]으로 발음한다.

(2)~(4)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르면 받침 'ㅌ, ㅈ, ㅊ'은 어말일 때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5)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르면 받침 'ㅍ'은 어말일 때 대표음 [ㅂ]으로 발음한다.

(6) 표준 발음법 제9항에 따르면 받침 'ㅅ'은 어말일 때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9 (1)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ㄳ'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몫'은 [목]으로 발음한다.

(4)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르면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늙다'는 [늑따]로 발음한다.

(6)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맑게'는 [말께]로 발음한다.

STEP 1 개념 Drill 01~03

본문 154쪽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늙지 **11** 무릎에 **12** × **13** ○ **14** × **15** ○ **16** × **17** 샜다 **18** 가르쳐 **19** 매고 **20** 가리키고 **21** 부쳤다 **22** 벌렸다 **23** 맞히다 **24** 맞추다 **25** 마치다 **26** 로서, 으로써 **27** 흥미진진하던지 **28** ○ **29** ○ **30** × **31** × **32** ○ **33** 의사 **34** 의심 **35** 히망 **36** 히생 **37** 예의/예이 **38** 성의/성이 **39** 나의/나에 **40** 친구의/친구에 **41** ㉡ **42** ㉠ **43** ㉡ **44** ㉡ **45** ㉠ **46** 낟 **47** 받 **48** 숩 **49** 무릅 **50** 목 **51** 여덜 **52** 삼: **53** 닥 **54** 읻따 **55** 갑쓸 **56** 넉씨 **57** 말께 **58** 달기 **59** 허두슴 **60** 마덥따

12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할 수 있다'로 띄어 쓴다.

14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한 개'로 띄어 쓴다.

15 '수'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쓰며,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8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게 한다.'라는 뜻이므로 '가르쳐'가 맞다. '가리키다'는 어떤 대상이나 방향을 지시할 때 쓴다.

21 편지나 물건을 상대에게 보내는 것은 '부치다'이다. '붙이다'는 두 물체가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의 뜻이다.

22 둘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것은 '벌리다'이다. '벌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의 뜻이다.

30 'ㅚ, ㅟ'는 표준 발음법 제4항과 [붙임]에 따르면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31 받침 'ㅊ'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꽃'은 [꼳]으로 발음한다.

32 받침에서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다. 다른 받침은 실제 발음에서 이 일곱 소리 가운데 하나로 바뀐다.

33~40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하므로 '희망'은 [히망]으로, '희생'은 [히생]으로 발음한다. 또한 단어의 첫음절이 아닌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며,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예의'는 [예의/예이]'로 '성의'는 [성의/성이]로, '나의'는 [나의/나에]로, '친구의'는 [친구의/친구에]처럼 두 발음이 모두 가능하다.

51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여덟'은 [여덜]로 발음한다.

57 표준 발음법 제11항 [다만]에 따르면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맑게'는 [말께]로 발음한다.

59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따르면 받침 뒤 모음 'ㅏ, ㅓ, ㅗ, ㅜ, ㅟ' 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허두슴]으로 발음해야 한다.

STEP 2 개념별 내신 대비 문제 본문 156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④ **08** ① **09** ③ **10** 예시 답안 어법에 맞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어 '있어요'라고 고쳐야 한다.

11 예시 답안 겹받침 'ㄺ'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은 [익따]로 발음하고,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해야 하므로 ㉡은 [일끼]로 발음한다.

01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규칙은 표준 발음법이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02 '강물[강물]'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물결[물껼]'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배려[배려]'와 '존중[존중]'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② '소금[소금]'과 '설탕[설탕]'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④ '놀이터[노리터]'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고, '운동장[운동장]'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⑤ '끝내기[끈내기]'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고, '마무리[마무리]'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03 '점심때, 발목, 다쳐(다치다), 보건실, 치료, 받았다(받다)'는 모두 조사가 아닌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썼고, '을, 에서, 를'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썼다.

| 오답 풀이 |

① '아침일찍'에서 '아침, 일찍'은 각각 명사, 부사로 조사가 아닌 단어이므로 '아침 일찍'으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체육 이었다'에서 '이었다(이다)'는 조사이므로 '체육이었다'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③ '맛난것이'에서 '맛난(맛나다), 것'은 각각 형용사, 의존 명사로 조사가 아닌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서 '맛난 것이'라고 써야 한다.

⑤ '걸을수'에서 '걸을(걷다), 수'는 각각 동사, 의존 명사로 조사가 아닌 단어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04 '꽃이[꼬치], 꽃을[꼬츨], 꽃에[꼬체], 꽃으로[꼬츠로]'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이, 을, 에, 으로'는 모두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썼다.

②, ③, ⑤ '꽃'이라는 체언(명사)과 '이, 을, 에, 으로'라는 조사의 본모양을 밝혀 적음으로써 뜻을 파악하기 쉽게 표기하였다. 이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05 '뒷풀이'가 아니라 '뒤풀이'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06 ㉠ '메다'는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를 뜻하므로 '가방을 멘'에 쓰인 '멘'은 올바른 표기이다. '매다'는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엇걸고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를 뜻하므로 '끈을 매었다'에 쓰인 '매었다'는 올바른 표기이다. ㉡ '부수다'는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를 뜻하므로 '잘게 부순'에 쓰인 '부순'은 올바른 표기이다. '부시다'는 '빛이나 색채가 강렬하여 마주 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를 뜻하므로 '눈이 부셨다'에 쓰인 '부셨다'는 올바른 표기이다. ㉢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를 뜻하므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에 쓰인 '가르치는'은 올바른 표기이다. '가리키다'는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를 뜻하므로 '누나를 가리키며'에 쓰인 '가리키며'는 올바른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 '새다'는 '기체, 액체 따위가 있던 곳에서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 나가거나 빠져 나오다.'를 '세다'는 '사물의 수효를 헤아리거나 꼽다.'를 뜻하므로 '바람이 새는', '세어 보았다'라고 고쳐야 올바른 표기가 된다.

㉣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를,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를 뜻하므로 '친구와 답을 맞춰', '내가 맞힌'이라고 고쳐야 올바른 표기가 된다.

07 '주의'에 쓰인 '의'는 단어의 둘째 음절에 해당하므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주의], [주이]로 발음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의지'는 제5항의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의지]로 발음해야 한다.

②, ③ '무늬'에 쓰인 '늬'와 '흰색'에 쓰인 '흰'은 각각 자음인 'ㄴ, ㅎ'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각각 [무니], [힌색]으로만 발음해야 한다.

⑤ '너의'에 쓰인 '의'는 조사이므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너의] 또는 [너에]로 발음해야 한다.

08 '낮과[낟꽈]', '낫[낟]', '낯가림[낟까림]'에 쓰인 '낮, 낫, 낯'의 받침 'ㅈ, ㅅ, ㅊ'은 모두 [ㄷ]으로 소리 난다.

09 '핥고'는 〈보기〉에서 'ㄾ'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할꼬]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여덟'은 〈보기〉에서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여덜]로 발음해야 한다.

② '앉지'는 〈보기〉에서 'ㄵ'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안찌]로 발음해야 한다.

④ '넋'은 〈보기〉에서 'ㄳ'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넉]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외곬'은 〈보기〉에서 'ㅀ'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외골]로 발음해야 한다.

10 '이써요'는 '있어요[이써요]'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있어요'는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해야 한다.

| 평가 기준 |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고쳐 쓰고, 고칠 때 적용한 원칙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고쳐 썼지만, 고칠 때 적용한 원칙을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11

| 평가 기준 |

㉠, ㉡의 정확한 발음을 쓰고, 그 까닭을 각각 〈조건〉에 맞게 적절히 서술한 경우	6점
㉠, ㉡ 중 하나만 정확한 발음을 쓰고, 그 까닭도 하나만 〈조건〉에 맞게 적절히 서술한 경우	4점
㉠, ㉡의 정확한 발음은 썼으나, 그 까닭을 둘 다 〈조건〉에 맞게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 ㉡ 중 하나만 정확한 발음을 쓰고, 그 까닭을 둘 다 〈조건〉에 맞게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STEP 3 단원별 내신 실전 문제 본문 159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② **05** ①, ②

06 (예시 답안) 얼음,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형인 '얼다'의 어간 '얼–'과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의 형태를 밝혀 표기해야 한다. **07** ③ **08** ③

01 '날다[날다]'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예이고, '날아[나라]'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본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다.

02 ㉠은 ㉡의 '꽃[꼳], 꽃을[꼬츨], 꽃길[꼳낄], 꽃나무[꼰나무]'를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맞춤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표기이며,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꼳, 꼬ㅊ, 꼰'과 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은 '꽃, 꽃을, 꽃길, 꽃나무'를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으로 맞춤법에 맞는 올바른 표기이다. 또한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가 쉽다.

03 '이번주'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번'과 '주'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이번∨주∨행사'라고 써야 한다.

04 '그달의 몇째 되는 날'을 뜻하는 단어는 '몇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몇일'은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은 말로,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① '벌이고'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를 뜻하고 '벌리고'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를 뜻하므로 '책상 간격을 벌리고'라고 써야 맞다.

③ '김치·술·장·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 두다.'를 뜻하는 단어는 '담그다'이므로 '김치 담그는'이라고 써야 맞다.

④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를 뜻하는 단어는 '통째'이므로 '통째로'라고 써야 맞다.

⑤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를 뜻하는 단어는 '부치다'이므로 '택배로 부쳤다'라고 써야 맞다.

05 ㉠은 체언 '빛'에 조사 '이, 도, 만'이 결합한 형태로 제41항에 따라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 예이다. 하지만 ㉡은 용언의 어간 '먹–'에 어미 '–어, –자, –는'이 결합한 형태로 조사가 쓰이지 않았으므로 제41항과 관련이 없다. ㉠은 '빛이[비치], 빛도[빋또], 빛만[빈만]'과 같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며, 체언 '빛'과 조사 '이, 도, 만'의 본모양을 밝혀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을 따른 예이다.

06 '얼음'은 '얼다'에서 온 말로, '얼다'의 어간인 어근 '얼–'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이다. 따라서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표기한 예이다.

| 평가 기준 |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정확히 고르고, 까닭을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근거로 들고 용언의 기본형을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정확히 고르고, 까닭을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근거로 들고 용언의 기본형을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여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정확히 골랐으나, 까닭을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1점

07 '띄어쓰기'는 자음 'ㅍ'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에 따라 'ㅢ'를 [ㅣ]로 발음하여 [띠어쓰기]라고 발음해야 한다.

08 제13항에서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부엌'의 홑받침 'ㅋ'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에서'의 첫소리로 옮겨 [부어케서]라고 발음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제14항에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닭'의 겹받침 'ㄺ'의 뒤엣것 'ㄱ'을 조사 '을'의 첫소리로 옮겨 [달글]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② 제15항에서 받침 뒤에 모음 'ㅗ'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다. '겉옷'은 '겉' 뒤에 모음 'ㅗ'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옷'이 연결되므로, '겉'의 받침 'ㅌ'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옷[옫]'의 첫소리로 옮겨 [거돋]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④ 제14항에서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여덟'의 겹받침 'ㄼ'의 뒤엣것 'ㅂ'을 조사 '이다'의 첫소리로 옮겨 [여덜비다]라고 발음해야 한다.

⑤ 제13항에서 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덮–'의 홑받침 'ㅍ'을 접미사 '–이–'의 첫소리로 옮겨 [더피고]라고 발음해야 한다.